



2014년 아시안게임은
동북아의 허브 도시 인천에서



Asian Games
INCHEON 2014
CANDIDATE CITY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17th Asian Games 2014

- 대회기간** 2014년 9월 19일 ~ 10월 4일(16일)
- 장소결정** 2007년 4월중 OCA총회(쿠웨이트)에서 결정
(인천, 델리 대회유치 경쟁 중)
- 주 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규모/종목** 45개국 OCA회원국 12,000명(선수, 임원), 37개 종목
- 기대효과**
 - ▷ 12조 9,32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조 5,575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6만 8천명의 새로운 고용기회 제공
 - ▷ 첨단정보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선진도시 건설
 - ▷ 국제도시이미지 강화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관광 진흥
 - ▷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시민화합과 통합의 계기 마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
www.2014inche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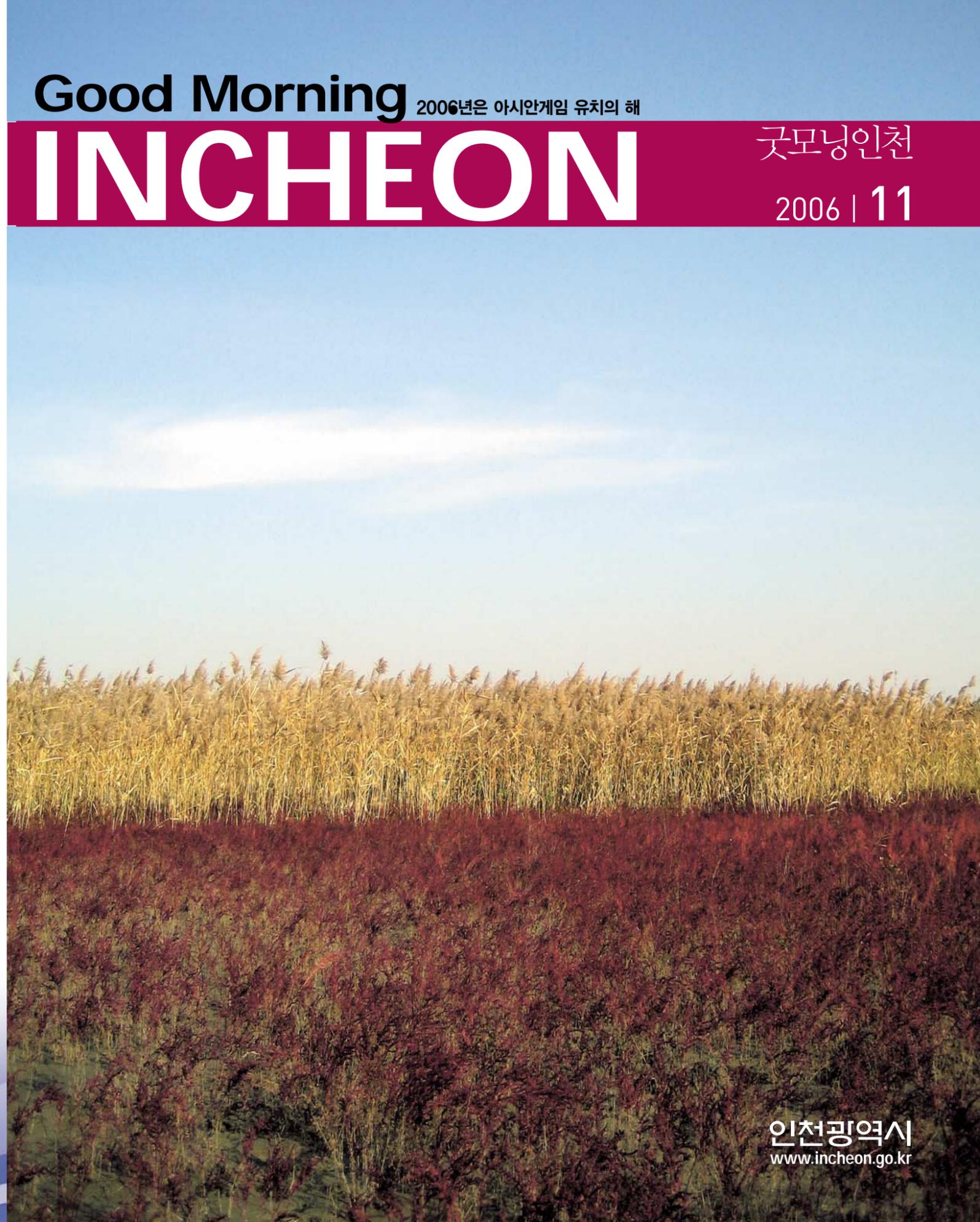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11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2006 인천

세계 청소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INCHEON WORLD JUNIOR BADMINTON CHAMPIONSHIPS

- 일 시 : 2006.11.2(목) ~ 11.11(토) (10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 주 최 : 세계배드민턴연맹(Badminton World Federation)
- 주 관 : 대한배드민턴협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인천신문
- 대회후원 : 인천광역시
- 주관방송사 : SBS 스포츠채널
- 대회협찬 : YONEX, 디오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11 (통권 155호)



표지설명
늦가을 소래 해양생태공원의
염생식물과 역새의 조화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현(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11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4 늦가을 기행 | 강화도 북문 고개길
- 08 아이들과 동네한바퀴 | 강화화문석문화관
- 12 新 문화기행 | 우리 일상에 스며든 문화공간
- 16 문화마을 순례 | 한국조형서각연구소
- 18 공간&건축 | 인천광역시건축상과 건축 정책
- 22 아시아가 집중한다 | 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경과
② 인천-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 개최
- 24 함께 나누는 세상 | 장애인 이동 도우미
- 28 시정소식 | 인천의 참 얼굴들 외
- 31 경제자유구역소식 | 미국이 인천을 주목한다
- 32 굿모닝인터뷰 | 인천광역시의회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강석봉 산업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김을태 건설교통위원장
- 35 시의회 소식 |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
- 36 브리핑 | 뉴실버클러스터 혁신 브랜드
- 37 굿모닝時評 | 무엇을 먹어야 하나?
- 38 이달의 공연 | 시립무용단 국수호의 '춤극' 명성황후 외
- 40 이달의 展 | 영화 속의 인천 외
- 41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 42 김치철각
- 43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글로벌 매너 & 에티켓 배우기
- 44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 팽이부리의 호랑이굴
- 46 참살이 동의보감 | 천식
- 47 야심만만재테크 | 펀드에 투자할 바에야 직접투자를 하신다고요?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스물다섯 살짜리 처녀 소방관의 당당함 윤선숙 소방사
-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차'
- 54 Info Box |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가산기준 변경안내 외
-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喜 | 고철덩어리? 휴~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밟히는 것이 어찌 낙엽뿐이라

색색별천지(色色別天地). 철따라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봄에는 들판이 싱싱하고 여름에는 바다가 제빛을 찾는다. 가을엔 하늘이 깊다. 이즈음 유난히 하늘이 깊은 강화도에 가면 붉은 단풍잎에 눈이 시리고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이 저려온다. 강화의 가을은 슬픈 가을이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잃어버린 시간의 주름

가을이 남녘으로 내려가면서 혼신의 힘으로 색깔을 쏟아내고 있다. 도시의 하늘을 벗어난 늦가을 햇빛은 강화도 들판의 곡식과 잡풀, 과일들에게 마지막 남은 젖을 물리며 서서히 생을 마감하고 있다.

강화읍 북산(北山)에도 늦가을이 걸렸다. 고려왕의 피난터였던 고려궁의 돌담을 끼고 오르는 900여 미터의 고갯길에 가을이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강화산성 북문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옷깃을 한껏 세우고 분위기 잡으며 늦가을의 정취에 푹 젖어 볼 수 있는 한적한 오솔길이다.

이 길은 꽃피는 춘삼월에는 새하얀 꽃비가 내리는 환상의 벚꽃터널이다. 아름다운 것은 사라질 때도 아름답다. 하얀 꽃 다 털어내고 질푸른 녹음으로 한여름을 보낸 후 이제 알록달록한 옷으로 거꾸 갈아입고 황금빛 이파리마저 털어내고 있다. 자동차가 지날 때

마다 낙엽들은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휘날린다. 스산한 기운도 함께 소용돌이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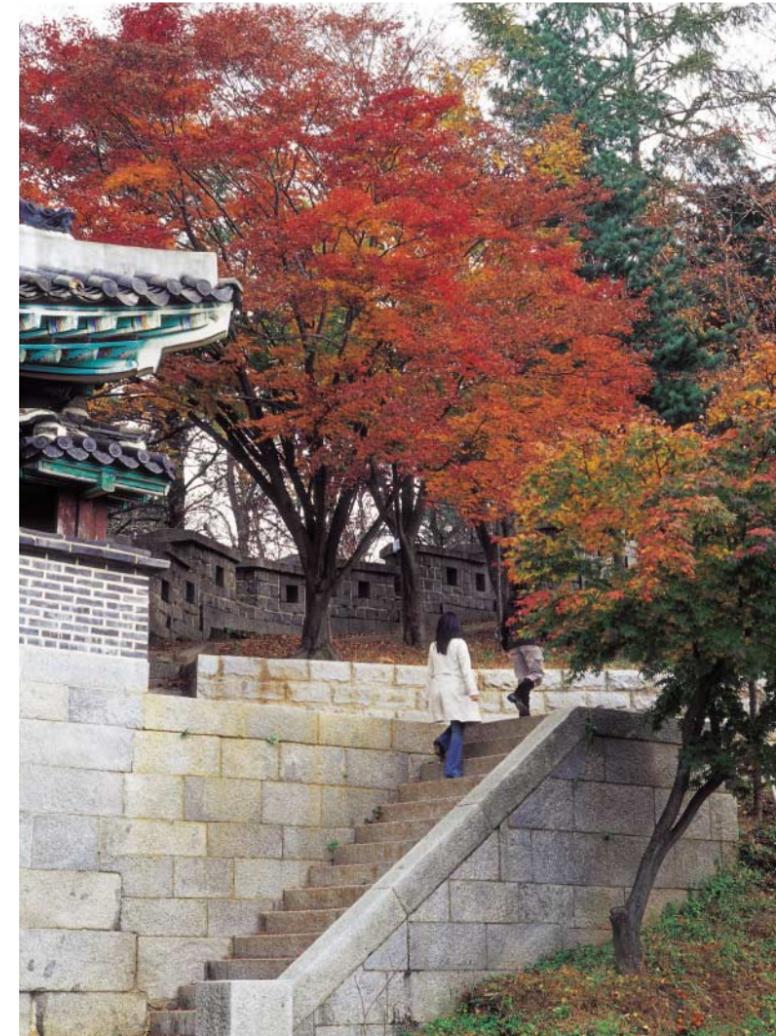
오르막 낙엽길을 따라 끝까지 오르면 진송루(鎭松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북문이 나온다. 북문은 대몽항쟁을 위해 쌓은 북산에 세운 강화산성의 북쪽 문이다. 아담한 성문 양 옆에 마치 수문장처럼 빨간 단풍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 한장의 그림엽서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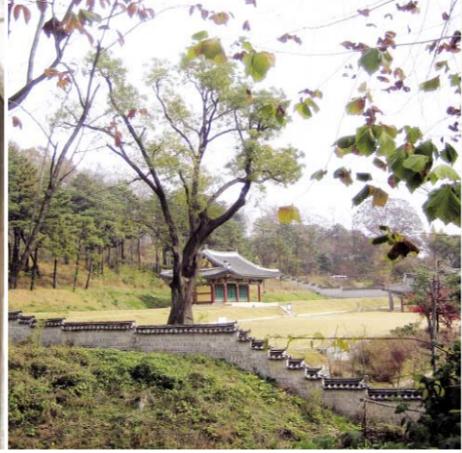
북산은 송악산이라고 일컬어진다. 몽골의 말발굽을 피해 강화도로 건너온 고려왕 고종은 개경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궁궐을 안고 있는 북산을 송악산이라 불렀다. 그 송악산에 어김없이 서러운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몇백년이 지나도록 저기 저, 나무에 얼마나 많은 고려인들의 서러운 눈길들이 머물다 갔는지... 마음 속에 고요히 여울지는 '시간의 주름'을 느껴본다. 슬픈 고려의 역사를 품고 있어서 그런지 이곳은 화려한 봄보다 스산한 가을에 찾는 것이 더 좋다.

하늘이 주신 약수터

성문 누각에 올라 북쪽을 바라본다. 북한 개풍군의 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고려 고종도 이 곳에 서서 고향 땅을 그리워했겠지. 지금은 6·25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이곳에 와서 고향 산하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의 대남방송이 찌렁찌렁 울렸을 만큼 저 땅과 이 땅은 한발치일뿐이다.

성문을 지나 성 밖 마을로 나선다. 미끈하게 뺀 수십 그루의 은행나무가 사열하듯 길게 도열해 있다. 얼마나 많은 은행잎을 털어냈는지 급내리막 길은 온통 노란색으로 이어진다. 그 밑으로 성밖 마을이 한가하게 펼쳐진다. 추수를 끝낸 황량한 들판, 까치밥 하나 달랑 매달려 있는 감나무, 들깨





만추기행 오솔길 5곳

가을이 끝으로 치닫고 있다. 윤달이 끼어 계절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얼떨결에 보내야만 하는 이 가을. 아쉬운 마음에 가을의 끝을 잡고 싶다면 몇 걸음 만에 닿을 수 있는 도심의 오솔길에서 만추를 느껴보자. '그림'이 되는 다섯 곳을 거닐어 본다.

를 털며 막바지 가을걷이를 하는 노부부의 모습 등 전형적인 농촌풍경이 연출된다.

마을에는 유명한 약수터가 있다. 물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오읍(五泣) 약수터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강화도에 있는 명소치고 전설 하나 없는 것이 있을까. 이 약수터에도 애절한 옛이야기 하나가 전해 온다.

피난 온 고려인들은 먼저 산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날이 가물어 갈증에 심한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우제를 올렸고 마침내 벼락 하나가 성벽 근처로 떨어졌다. 그곳에 가보니 커다란 바위가 깨져 있고 거기서 맑은 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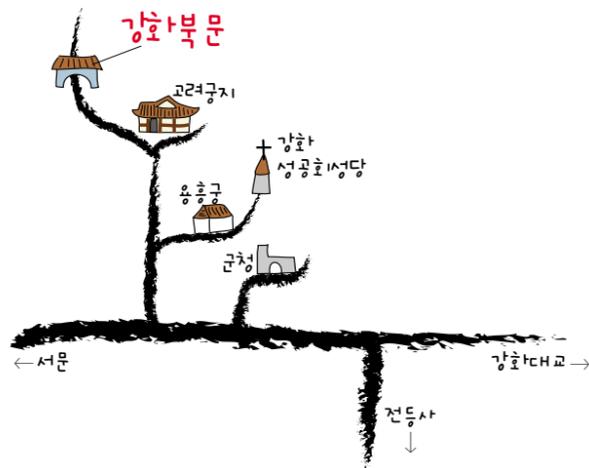


솟아나고 있었다. 고향을 잃은 고려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는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신이 울고, 임금이 울고 또한 백성이 울었다하여 '다섯 오'에 '울 읍' 자를 써 오읍약수라 불렀다.

북문에서 약수터까지는 500

보 정도로 가깝다. 짧지만 이 길은 약간 굽어 있고 유난히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 늦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 볼 수 있다. 이 길을 걷다보면 밝히는 것은 낙엽뿐만이 아니다. 이 가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애절한 마음도 낙엽과 함께 깊게 밝힌다. ☀

찾아가는 길 강화읍 고려당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00m 정도 오르면 고려궁지 주차장이 나온다. 거기서 궁궐 담을 끼고 오르면 북문까지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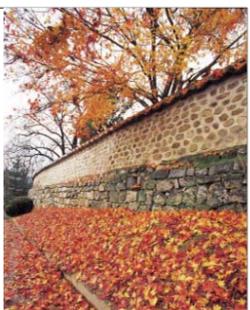
한걸음 더

강화산성 북문 인근에는 역사를 품고 있는 유적지들이 몰려 있다.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이곳들만 둘러봐도 5천년 우리 역사의 한줄기는 꿰뚫어 볼 수 있다.

용흥궁은 조선 제25대 철종이 왕이 되기 전 '강화도령'으로 지냈던 일반 가와집이다. 김상용손의비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남문 화약고에서 자결한 충신 김상용을 기린 비석이다.

고려궁지는 몽고의 침입때 고려 왕조가 강화도로 피난했을 당시 임금님이 거처하던 궁궐로 이곳에서 약 39년간 (1232~1270) 몽고에 맞서 항쟁하였다. 고려궁지에는 조선시대 강화지역을 다스렸던 유수부 건물 명위헌과 이방청 그리고 강화동종이 있다.

강화성공회 건물은 1900년에 지어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공회 예배당이다. 외부는 한옥식 건물로 지어 올려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내부는 전형적인 바실리카양식이다.



계양산 북면 목상동 일대

최근 개발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계양산 북쪽 사면에는 분위기 좋은 숲길이 곳곳에 숨어 있다. 특히 현대제철 주말농장 앞길부터 목상동 토속음식마을 까지의 기다란 오솔길은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다 굽은 길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운치를 더 해준다. 곳곳에 소나무 숲이 있어 돛자리 펴 놓고 솔향을 맡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사열하듯 줄 지어 서있다. 낙엽 휘날리며 자전거로 달릴 수 있고 가을 바람 가르며 인라인스케이트로 달릴 수 있도록 한쪽을 우레탄으로 포장했다. 800여년 된 장수동은행나무 밑에서 영험한 노란물감 세례를 받는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다.

남동구 수산동 뒷동산

남동구청 뒷쪽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오르면 도심 속의 '맨얼굴'을 접하게 된다. 땀기풀이길, 달맞이길 등 이름만큼이나 예쁜 길들을 따라 오르면 아직도 천장 만장의 잎새들이 도시인의 가쁜 숨을 받아준다. 길을 따라 거닐다 보면 남촌나무밭, 자연학습장, 라이브카페, 배 농장, 사슴농장, 토속음식점 등 다양한 테마를 발견하게 된다.



문학산 배수지길

고구려 비류왕자가 세운 미추홀의 터전 문학산은 인천역사의 탯줄이 묻힌 곳이다. 학익동 쪽 산허리 부분에 학익배수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랫동네에서 배수지 정문까지 이르는 약 500여 미터 길 양 옆으로 잎이 무성한 가로수가 심어져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숲터널을 이루고 있다. 통행인이 뜸해 문학산의 기를 느끼며 조용히 늦가을을 맛보기에 안성맞춤이다.



연수구 적십자병원 옆길

적십자 병원과 대우1차 아파트 사이길은 원래 벚꽃길로 유명하다.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이 나무들이 가을에는 도심에선 보기 드물게 예쁜 풍경을 연출한다. 길은 배수지공원과 연결돼 산길 산책도 가능하고 쪽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병원 정원에서 벤치 휴식 그리고 길가에 있는 연수도서관에서의 가을 독서 등 만추 분위기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다.

을 독서 등 만추 분위기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다.

남동구 만의골

인천대공원 뒷쪽에는 소래산과 관모산이 만든 만의골과 연락 골이란 운치있는 골짜기가 있다. 윤연동 입구에서 9공수부대 정문까지의 1.75km 길에는 메타세콰이어와 느티나무들이



* 봄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개나리 길이나 벚꽃 길 등 우리 동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오솔길이나 드라이브길을 추천해 주세요. 채택된 분들께 문화상품권(1만원권) 3매를 드립니다. (440-2071)



짚풀공예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다 강화화문석문화관

우리민족은 농사의 부산물인 짚, 산야에서 자생하는 풀을 이용해 고유한 문화를 형성했다. 산모가 출산할 때는 짚이나 풀로 만든 자리를 깔아줬고 이엉과 용마름을 엮어 만든 초가집에서 살았다. 또, 주검을 이엉으로 덮어주는 초분(草墳)이란 장례법을 행하기도 했으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짚, 풀과 함께 한 것이다. 김경웅(가정초 4년), 건우형제와 장지영(가좌초 3년), 나영(가좌초 1년) 자매는 우리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짚, 풀의 결정체 '화문석'이 뭔지 잘 모른다. 그저 아름다운 가을햇살 속 강화 여행에 잔뜩 들떠있을 뿐이다.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화려하되 눈부시지 않아서 좋다

푸른 하늘, 황금 들녘, 한들대는 코스모스, 곱게 물들 채비를 하는 나지막한 산... 강화화문석박물관을 찾아가는 내내 가을은 그렇게 일행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화문석(꽃 모양의 자리)과 가을은 참 많이 닮았다. 둘 다 화려하지만 눈부시지 않다. 가을 하늘이 하얀 구름을 모두 빨아들인 듯한 청명한 모습이라면, 화문석은 바라볼수록 눈길을 잡아당기는 깊은 멋을 풍긴다. 정성을 다한



시간에 대한 결실이란 점 또한 마찬가지다.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에 자리한 화문석박물관은 가슴 시원하게 펼쳐진 넓은 들과 산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멀게는 한강 하구 건너 북녘 땅도 눈에 들어온다.

“어? 우리 여기 와봤어요.”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을 보며 반가워한다.

화문석박물관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자연사박물관 옆이기 때문일까? 궁금증은 강화화문석박물관 직원 허성자 씨를 만나자 곧 해결됐다.

“화문석의 유래는 문헌에 기록된 것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고려 중엽부터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했죠. 90여 년 전 조선왕실로부터 화문석의 도안을 특색 있게 제작하라는 하명을 받고 한충교 선생이 연구를 거듭해 무늬를 넣은 화문석 제작에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다양한 도안과 제작기술 개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백색자리 생산지인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는 바로 한충교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가 있는 풍요로운 마을인 것이다.

화문석박물관 허성자 씨의 안내에 따라 화문석의 주재료인 왕골의 재배와 가공에서부터 왕골공예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2층으로 올라갔다.

손가락 하나하나로 엮어낸 명품

화문석의 주재료인 왕골(완초)은 겉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풀인데 1.5~2m로 다 자라면 황색을 띤다.

왕골이라는 이름은 많이 접했어도 직접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네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왕골 품종들을 한꺼번에 만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짚, 풀과 왕골의 세포 조직을 현미경으로 직접 비교해 보는 기회까지 얻었다. 마른 상태라 현미경 관찰이 쉽지 않지만 친구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찾아냈으며 즐거워한다.

왕골은 세모모양의 숨 조직을 갖고 있다. 그 숨 조직이 수분을 흡수해 여름에는 뽕송뽕송하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냉기를 막아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숨 조직



이 쿠션역할까지 해 오래 앉아있어도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왕골로 만든 화문석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과학'이다.

바닥에 까는 자리로는 페르시아나 터키 등에서 양털로 만든 카펫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왕골로 만든 화문석이야말로 계절에 따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명품인 셈이다.

지역이 경용이가 설명을 듣는 사이 유치원생 건우와 1학년인 나영이는 어느새 왕골의 재배와 가공, 그리고 화문석 제작과정이 재현되어 있는 대형 디오라마 전시관 앞으로 뛰어가고 있다.

왕골을 5월 말경 심어 8월 초에 수확해 3쪽으로 쪼개어 건조시킨 뒤 다시 물에 불려 칼등으로 훑어낸다. 그런 다음 물감을 들여 고드레 돌의 날실을 이용해 화문석을 엮어내는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재현돼 있다.

“약 60만 번의 손을 움직여야 한 장의 화문석이 완성됩니다. 뼈마디가 저리도록 고된 노동이죠.”

허성자 씨의 설명에 친구들은 할 말을 잃는다. 조상들의 인내와 끈기에 그저 놀랄 따름이다.

“특히 강화화문석은 다른 지역에서 제작되는 돗자리와는 달리 왕골에 물감을 들여 화려하고 정교한 무늬를 수놓은 최상품으로 예로부터 궁궐의 장식과 제례, 혼례와 같이 품위를 갖출 때 사용했지요.”

전시되어 있는 옛 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태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고급공예품인 화문석에 관련한 기록이 있다.



현대 주거공간에도 잘 어울려

현존하는 화문석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등매'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도 보고, 중요무형문화재 완초장 이상재 선생의 작품과 그의 제자들의 작품도 감상했다. 붓으로 그리라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데다 황홀하면서도 은은한 색깔을 대하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숙련된 장인 6명과 연인원 240명을 투입해 무려 40일에 걸쳐 제작되었다는 지름 3.3m의 대형화방석을 보자 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을 벗고 올라가 앉아본다.

화문석은 목적에 따라 변신한다. 화방석(문양을 넣어 만든 왕골방석)이나 꽃삼합(크기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왕골이 한 세트를 이루는 공예품) 등 소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최근엔 시계가 달린 장식품, 목걸이, 브로치 등으로도 선을 보이고 있다.

"웬 아파트 거실?" 아이들이 의아해 한다. 그리고 보니 전시 공간 한쪽에 아파트 거실이 연출되어 있다. 일반거실과 다른 것은 화문석이 비닐장판, 카펫, 레자방석, 각종 플라스틱 제품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아하면서도 소박함을 잃지 않는 은근한 멋이 화려하고 편리하기만 한 인공섬유로 만든 제품들과는 다른 품위를 전한다.

아이들은 소파 위 화방석에 앉아 화문석에 관한 짧은 영상물도 시청했다.



"어, 컴퓨터다!" 박물관에 웬 컴퓨터인가 싶었는데 '화문석 도안 만들기' 체험공간이다. 디자인 프로그램이 왕골을 모눈종이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곳에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 오고 표현하고 싶은 색을 지정하면 된다. 도안을 해봤으니 이제 직접 왕골을 엮을 차례.

"자 이제 왕골로 직접 소품을 만들어볼까요?"

화문석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친구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제안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1층 체험공간으로 달려간다.

"다음에 왕골 엮기 다시 해 볼래요"

1층에는 일반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마음에 드는 왕골공예품의 구입도 가능하다.

체험학습장에 들어서니 실이 감긴 고드레 돌 여러 개가 나무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아이들은 나무틀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는다. 마침 곧 있을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을 준비 중이던 전순애 씨가 친구들의 왕골 엮기를 도와준다.

"왕골은 풀이니까 물이 없으면 썩어요." 스승님의 말에 친구들은 재빨리 물통 속에 왕골을 담그는데... 곧 이은 스승님의 지적. "어?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불어서 안돼요." ^^



왕골을 하나씩 잡고 통통하게 안감을 댄 다음 틀 위에 가로로 올려놓고 고드레 돌을 감는다. 처음에 어찌할 줄 모르던 아이들이 15분 정도 지나자 가속도가 붙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씨줄과 날줄을 엮듯 엮는다.

"주황색도 주세요~" 7살 건우까지 어찌나 열심이던지 일정상 작품 만들기를 중단시켜야 상황이 무척 미안할 정도였다.

채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두고 일어나며 경웅이가 미간을 찌푸린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 그래서 예부터 화문석 만드는 자리틀을 '골병틀'이라 했다.

옆에 있던 지영이도 한마디 거든다.

"처음에 전시품 가격표를 보고 놀랐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더 비싸야 할 것 같아요."

화문석의 멋에 흠뻑 취한 나영이 지영이 경웅이 건우는 이미 느꼈을 것이다. 화문석은 단순한 듯자리가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그 유산은 수 백 년 동안 조상들의 땀방울과 거친 손마디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고 이제 유산을 계승해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까지... ☀



체험학습 신청 안내

화문석 문화관에서는 화문석 왕골공예소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을 통해 왕골 공예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 학습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만 12세 이상 신청 가능하다. 또 사방 20cm 크기의 미니 화문석과 왕골 약세사리를 1~2시간 정도면 직접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더욱 흥미롭다. 체험 학습료는 개인 5천원(10인 이상 가능), 단체 4천원(20인 이상)이다. 1주일 전에 전화(032-932-9922)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화문석문화관 관람 안내

관람시간 : 9:00~19:00

매표시간 : 9:00~17:3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문의 032)932-9922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신청방법 : 전화예약신청

수강기간 : 3개월(주2회 수, 금 10:00~12:00)

수강료 : 무료

충치 빼러 갔다가 그림 감상하고 오지요

예술회관에 가야만 연주회나 공연을 볼 수 있고 갤러리에 가야만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 곳곳에는 내면 깊숙이 잠들었던 감성을 깨우는 문화공간들이 숨어있다. 예상치 못했던 공간에서 만나는 문화의 향기와 감동은 더더욱 진할 수밖에 없다.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김성환 (자유사진가)

감칠맛 도는 초록갤러리 | 가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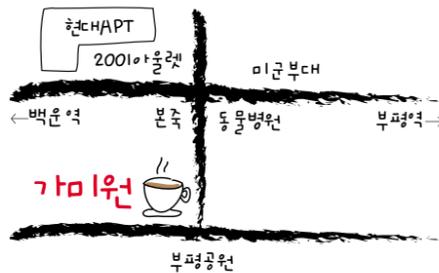


부평공원 옆에 위치한 가미원(嘉味圓)은 여느 음식점과는 사뭇 다른 향이 풍긴다. 건물 입구에 서있는 이젤은 가미원을 갤러리로 착각하게 할 정도다. 건물 전체가 세트장처럼 오목조목 잘 꾸며져 있다. 1층에서 맛난 식사로 보신을 했다면 3층에 마련된 '초록갤러리'에서는 감성을 보양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1층보다 3층에서 더 감칠맛이 도는 듯하다. 초록갤러리는 단순히 그림 몇 점으로 공간을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갤러리가 결코 아니다. 이경호(가미원 사장)씨가 이런 공간을 꾸민 데에는 남다른 배려가 숨어있다.

전문 갤러리처럼 정형화되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 들어와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다. 그렇기에 식사손님은 물론, 바로 옆 공원에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도 갤러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갤러리 대관을 비롯해 도록, 홍보 현수막 제작에 드는 비용까지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전시 일정이 예약된 상태다. 경쟁을 통해 엄선된 작가의 작품들을 일상공간에서 마주하는 기쁨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씨는 앞으로 건물 7층 하늘정원에 소공연장도 마련해 시민들이 더 많은 공연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_505-5775)

이밖에도 프랑스의 미술관 이름을 딴 송도유원지 근처의 '오르세(Orsay)' 1층에서도 미술·공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2층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다.(문의_832-2517)



도시인의 생활속에 찾아든 문화공간 | 인천지하철역사

지하철역은 우리 일상 테두리 안에 극히 밀접해 있는 공간중 하나다.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퇴근길 시민들의 지친 몸과 맘을 달래주기 위해 인천터미널역, 인천시청역, 부평역, 작전역 등에서 합창과 댄스, 마술, 무용, 마임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인천시청역 오딧세이 광장에는 상설 예술무대를 설치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스포츠 댄스, 록 음악, 마술쇼, 사물놀이, 밴드공연, 무용, 합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11월~3월 동절기 제외). 비대중적인 예술가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바쁜 일상으로 문화생활에 소외된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지하철역은 단순히 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의 개념을 넘어 우리 생활 속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문의_451-2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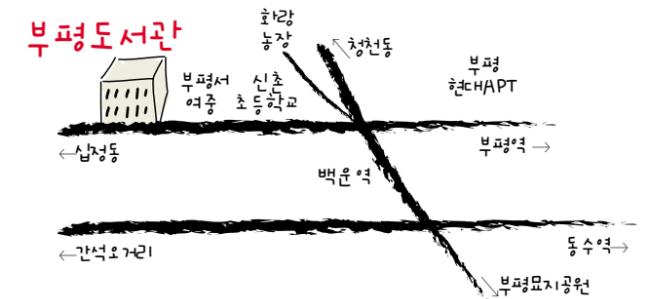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향기 | 열우물전시실

"들락날락, 우리 애들은 전시실 들어가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형식의 전시라서 좋아요. 다음엔 무슨 전시를 할까 제가 더 궁금해진다니까요." 4살, 7살 두 아이와 이틀에 한번 부평도서관을 찾는 김환경(부평구, 36) 주부는 도서관에 오면 독서도 하고 전시도 볼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된단다. 부평도서관 1층에 마련된 열우물전시실에서는 60~70년대 학교 교실을 재현한 '추억의 교실', 과거 인천야구를 대표했던 선수들이 사용했던 야구용품들을 전시한 '인천야구 자료전',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 전시된 '만져보는 그림책 전시회' 등 참여형 혹은 체험형 전시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열우물전시실은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조력과 영감을 주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평생교육의 장이라는 의미의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문화전시를 제공함으로써 또다른 평생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문의_부평도서관 526-9301)



찾는 김환경(부평구, 36) 주부는 도서관에 오면 독서도 하고 전시도 볼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된단다. 부평도서관 1층에 마련된 열우물전시실에서는 60~70년대 학교 교실을 재현한 '추억의 교실', 과거 인천야구를 대표했던 선수들이 사용했던 야구용품들을 전시한 '인천야구 자료전',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 전시된 '만져보는 그림책 전시회' 등 참여형 혹은 체험형 전시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열우물전시실은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조력과 영감을 주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평생교육의 장이라는 의미의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문화전시를 제공함으로써 또다른 평생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문의_부평도서관 526-9301)



나무에서 피어나는 문자예술 서각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으로 글자를 써 내려가던 사람들은 평면적인 예술 너머의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나무 위에 붓이 아니라 칼과 망치, 끌을 이용해 글자를 입체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렸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부평역 부근에 위치한 한국조형서각연구소에 들어섰을 때, 백초 박민수 선생과 문학생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연구소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각 작품이었다. 다양한 빛깔의 나무위에서는 조형

적인 글자들이 자기만의 향기를 뿜어 내고, 작업실에서는 회원들이 나무 위에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목재소에서 가져

온 매끄러운 나무들은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한 쪽에 쌓여 있었다.

백초 선생은 서각의 기초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서각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글서(書) 자에 ‘새길 각(刻) 자이니 글, 즉 문자를 새긴다는 뜻이 된다. 나무에 새기는 방법으로는 음각, 양각, 음·양각, 혼합각이 있다.

서각은 예술성보다는 기록 보존을 위한 수단, 실용적인 목적에서 제작되어 왔는데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에서 그 정

점을 이룬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전통서각의 현대화에 선구적으로 뛰어든 이들 덕분에 예술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서예도 병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대서각이 지닌 미술품으로서의 조형미를 창조해내는 데 더 매력을 느껴서 현대서각 작품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벽에 걸려 있지 않고 바닥에 세워져 있는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니 ‘환조서각’으로 작품을 세워놓고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입체서각 작품이라고 한다. 완성된 글씨에 물감을 입혀서 조형미를 살리는 데, 주로 사용되는 물감은 아크릴, 서양화, 동양화 물감이다.

서각에 새겨져 있는 전각을 가리키면서 서각은 전각, 현판, 판화도 포함한 종합미술로, 서각을 하기 위해서는 서예가 기본인데 조형미가 뛰어난 전서체가 많이 쓰인다고 했다.

우리나라 나무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주목, 박달나무가 쓰이고, 수입목으로는 알마시카, 마디카가 적당하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나무는 휘는 성질 때문에 서각에서는 환영 받지 못한다. 느티나무는 딱딱해서 숙련된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은행나무는 결이 곱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색깔을 잘 먹어서 많이 사용된다.

현재 백초 선생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30명 정도, 10여 명이 작업실로 나와서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서각협회 회원으로, 매년 전시회를 열어 일반인들에게 서

각의 세계를 알린 덕분에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 수석부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연수문화원, 인사동으로 출장을 나가면서 서각의 예술미를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고 있다.

편안한 글씨체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 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따스한 마음은 세상의 가슴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라는 서각 작품의 주인공 서양희 씨는 자녀의 학교에서 평생교육



로 잠깐 서각을 접한 인연으로, 서각의 세계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었다. 서각 작품을 하면서 작품을 창작하



는 일만 하지 않고,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끼리 매달 목요일에 한 번씩 만나 한국서각아카데미를 열어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벽에 걸어 놓는 고급예술 작품으로서의 서각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 쓰이는 것들 즉 다상, 시계 등에 접목을 해서 대중에게 서각예술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서각의 대중화를 꿈꾸면서 자기 만족의 예술에만 갇혀 있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6년째 서각을 하고 있는 안정자씨는 원래 백초 선생과 서예로 인연을 맺었는데 서각 전시회에서 서각 작품에 매료된 후 서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서예가 주는 아름다움도 좋지만 먹색에 변화를 주어 색다른 것을 원하던 마음을 서각이 채워주었고, 서각 작품은 볼수록 싫증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예는 한 번 틀리면 수정이 불가능한데 서각은 약간 틀려도 다듬기를 통해서 보완이 되는 포용성이 있다는 점도 서각 작품의 매력이라고 했다.

그녀는 서각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글자의 아름다움을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글자의 의미를 알리고 하기 보다는 작품자체를 감상해야 서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작품감상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었다. 기초과정 1년을 거치면 망치와 칼을 이용해서 글자에 각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 마음까지도 길러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창작을 향한 인간의 욕구가 멈추지 않는 한 ‘예술의 변신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자연의 예술 작품 가을하늘이 오늘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문의 : 한국조형서각연구소 524-6536)





스카이라인 변화로 도시 이미지가꾼다

건축은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이다. 어느 도시를 가든 예쁜 집, 멋진 건물은 그 도시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좌우한다.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 과거의 뛰어난 건축물을 보전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건축물에는 예술가의 혼을 담기위해 노력한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인천,

우리시는 지난 1999년 제1회 인천건축 도시주간행사를 연 것을 시작으로 매년 인천시건축사회와 함께 민·관·학 공동의 건축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도시주간행사는 한 사회의 문화적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를 토대로 한 시대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도시,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행사다. 또한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제정해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축물이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올해 우리시 건축상은 아쉽게도 최우수상이 공공부문에서 해양경찰청사가, 일반부문에서는 동양텔레콤 사옥이, 주거부문에서는 송의동 다가구 주택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해양경찰청사는 기능적인 배치가 뛰어나고 합리적이며 형태가 간결해 작품성이 돋보여 수

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연수구에 있는 동양텔레콤 사옥은 그린 오피스로서의 랜드마크 이미지 구축과 이에 걸맞은 고품격 공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무실과 공원의 유기적 연결과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것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송의동의 주거건물은 낙후된 주변 환경에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적 성격을 부여해 융통성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중구 인현동에 자리 잡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인천의 구도심에 학생을 위한 문화회관을 건립한 것이 지역개발에 촉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어 선정되었다. 공공건축물 우수상으로 선정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부분의 조화 있는 구성으로 조형감을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반건축물로는 진입부의 중정과 식당에 연결된 외부데크 및 건물주변에 연못을 설치해 근무자의 휴식과 방문객의 이미지 부각에 노력한 셀트리온 공장이 선정됐다.

2004년 인천시건축상에는 문학월드컵경기장이, 2003년과 2002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사, 인천지방검찰청사가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우리시 건축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바 있다.

고품격 도시 환경 마련

우리시는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건축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어 우리시의 정책에 주목할 만하다.

우선 주택의 미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격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며 외국인 및 기업인과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규모별 공동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택지개발 계획 사업시에 40평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25~30% 이상 짓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등에 고품격 주거단지를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하 주차장 비율을 확대해 옥외공간과 주거공간의 유기적 공간조성을 유도하고 공동주택단지 선진사례 조사와 사이버 아파트 구축 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공공주택은 우리시민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주민 공동체 문화를 확산·보급해 공동주택을 살기 좋고 안전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2000년부터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00년에는 서구 불로동의 신명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었고, 이후로 계양구 학마을아파트, 만수동 벽산아파트, 연수동 우성1차아파트 등이 선정되었다.



1 공공부문 우수상 해양경찰청 2 일반부문 우수상 동양텔레콤 사옥 3 주거부문 우수상 송의동 다가구 주택



4 2004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문학월드컵경기장 5, 6 2003, 2002년의 최우수상 수상작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7 2005년도 최우수상 수상작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제 성냥갑 건물은 NO!

우리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도시의 기능회복과 낙후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지양하고 가능한 탑상형으로 해 개방감 있는 건물을 짓는다. 앞으로는 똑같은 모양의 성냥갑 같은 건물은 가능하면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계획은 공원면적을 일정기준 이상 확보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적정 입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해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의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는 공동주택의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신규로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마감자재, 조명설비, 주방기구 등에 대해 입주인이 취향에 따라 선택해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입주 후 마감재를 교체하는데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내부 마감의 획일성을 탈피하게 하고 있다. ☀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공식 초청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10월 15일부터 개최된 '2006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세계의 혁신적인 도시개발 모델의 하나로 선정돼 공식 초청됐다. 베니스 건축비엔날레는 1895년 시작된 종합예술대전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건축이벤트로 손꼽힌다. 3개월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진행되는 올해 특별전의 주제는 '도시-항구'로 우리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 리버풀 등 세계 15개 도시가 초청돼 독특한 도시개발양식이 소개된다.

우리시와 토지공사는 인천의 역사, IFEZ의 마스터플랜, 도시 인프라, 청라, 영종, 송도지구 개발사업 등을 전시한다.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우리나라의 사업모델이 소개된 것은 지난 2004년 청계천 복원사업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

인천은 근대 건축물 종합전시장

우리 인천은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개항장이라고 불리는 자유공원 일대에는 개항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여럿 남아 있다. 개항초기에 세워진 인천의 근대 건축물들은 대개 100년 전에 머릿돌을 박았다.

구(舊)인천일본제일은행은 64평의 석조 단층건물로서 1899년 세워졌다. 외형은 반원아치의 현관을 중앙에 두고, 머리에 르네상스풍의 작은 돔을 올려서 좌우 대칭으로 지었다. 외벽은 화강암을 다듬어 쌓고 처마 부분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린 석조 파라펫 난간을 올렸다. 제일은행 건물은 당시 순수한 서구양식의 석조 건축물로 수준 높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동에 소재한 구(舊)일본58은행은 18은행과 더불어 현존하는 인천 최고(最古)의 양식 건물로 일본에서 들어 온 벽돌로 건립했다. 초기 양식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외관은 벽돌조 구조물에 석판마감으로 구성했다. 1층은 석조 기단으로 되어 있고 2층 발코니와 아래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머(Dormer)창이 특징이다. 가파른 계단을 통해 2층과 연결돼 있는데 2층은 목조의 발코니 형식으로, 지붕은 2층의 경사를 이루는 맨사드(Mansard) 지붕이 조화되어 전체적으로 프랑식 르네상스 양식을 보여준다.

동구 창영동에 있는 구(舊)여선교사 합숙소는 1892년부터 1894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 2층, 지하 1층에 건평 142평 짜리 붉은 벽돌로 북유럽 양식을 띠고 있는 이 건물은 근대 르네상스 양식을 띠고 있다. 검정 함석을 사용한 지붕은 물매가 매우 가파르며 창문의 형태가 모두 오르내리창이라 외관이 독특하다. 조선시대 서원이나 사찰의 승방에서 사용했던 '용(用) 자살 창호형태를 원용하고 가장자리는 교살 등의 문양으로 짜 넣은 것이 눈길을 끈다.



담동성당

현재 중구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舊)제물포구락부는 1901년 6월 당시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인들의 사교장으로 지어졌다. 응봉산 비탈을 깎아 벽돌조 2층으로 지었는데 아래층(32평)이 2층(85평) 보다 좁은 관계로 전체적인 모습은 2층 위주의 단층집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의 형태는 단순한 편이지만 지붕 형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양철로 덮여 있다.

현재 담동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바오로 대성당은 1895년 착공해 1897년 준공됐다. 준공당시에는 벽돌조 단층 건물로 고딕적 양식을 띠었으나 1934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1937년에 단층 벽돌조로 다시 고쳐 지었다. 옛 성당건물을 세워둔 채 그 외곽을 벽돌로 쌓아 올린 공사였다. 담동성당은 서양미술을 도입해 지은 인천 근대 건축 제1기에 속하는 건물로 고딕(Gothic)과 로마네스크식이 어우러져 예술적 가치가 가장 큰 건축물이다. 건물의 외형은 동서양 절충양식으로 반원 아치창문을 주제로 돔을 얹고 장미창을 마련했다.

우리는 개항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자유공원 일대의 외국인 사택과 별장 등 5~8군데를 복원해 당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원 후보에 오른 건물은 존스톤별장, 세창양행사택, 영국영사관, 알렌별장, 러시아영사관 등이다.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위)과 일본58은행(아래)



2014 Asian Games 또 다른 화합 이룬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 선정이 당초 올해 12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와 행사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해온 유치위원회는 지난 8월16일~23일 태국 방콕, 스리랑카 콜롬보,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쳤다. 경쟁국인 인도의 영향권에 있는 남아시아 국가의 NOC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형식보다는 실효성 있는 홍보를 펼쳤다. 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몰디브,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 8개국에 참가한 제10회 남아시아 경기대회(8월18일~28일)도 참관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했다. 유치위원회는 45명의 NOC위원들 중 현재 30표 이상이 인천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는 11월 유치희망도시 평가를 위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평가위원회가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아시안게임 개최 능력을 한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가단은 데일릿 셀스 OCA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우리시 곳곳을 둘러볼 계획이며 도시의 특징과 기후, 환경조건, 경기장, 숙박시설, 대회 프로그램, 보건의료체계 등 23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유치위는 각종 국제대회 경험과 체육시설 간의 상호접근성, 입지여건, 경기장·연습장·선수촌 확보현황 및 계획, 숙박시설, 출입국 편의, 매스미디어 등 우리시의 장점을 적극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 최근 불거진 북핵문제 등과 관련해 인천유치가 오히려 국제적인 긴장관계를 풀 수 있는 평화사설의 역할을 할 것이며 스포츠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 인천유치만이 남북한의 화합과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지향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는 데에 긍정적 의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현재 우리시는 아시안게임 창설국인 인도와 경쟁하고 있으며 유치국 선정은 내년 4월 쿠웨이트에서 열릴 OCA 임시총회에서 45개국 회원국들의 표결로 결정된다.

자료제공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440-4164~5, www.incheon2014ag.org)

유치홍보에 우리도 한몫

지난 8월20일 '2006 삼성 하우젠 K리그 올스타전'에서 인천 출신 축구국가대표 김남일과 이천수 선수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9월22일 인라인 국가대표 선수인 이슬(15·관교여중)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9월초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여자주니어 마라톤에서 세계 최연소 금메달을 획득한 이슬은 지난 9월말 대만에서 열린 제12회 인라인롤러아시아선수권대회에 국가 대표로 출전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In-joy Asia 또 다른 우리가 산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인천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주민의 수가 5만여명을 넘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천주교인천교구의 국민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까리따스 이주노동자문화센터, 사랑마을교회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천국제교류센터, 인천민예총, 남구청 등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뜻을 모아 In-joy Asia, Incheon Festival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9월 24일(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 약 2천여명의 인천거주 외국인들과 인천시민이 참가해 문화를 매개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11개국의 전통의상, 놀이, 음식 등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체험마당과 이주노동자 사진전, 미술전 등을 포함한 전시마당 그리고 한국문화체험마당, 이주민들의 전통문화 공연마당 등의 주요 행사가 이뤄졌고 그 외에도 이주민이 부르는 한국어 노래자랑, 헤나문신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아시아 음식체험마당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인도네시아의 '룸피아' 등 30여 가지에 이르는 이국적인 음식의 맛과 향을 즐겼다. 한복입기, 풍물놀이, 짬뽕문화 체험, 떡메치기 등이 펼쳐진 한국문화체험관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직접 체험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열렬한 호응을 보였다. 한국어 노래자랑 대회에는 프로가수에 버금가는 실력을 발휘하는 참가자와 박자와 음정은 정확하지 않지만 흥에 겨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들이 한데 어울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반면 축제에 참여한 인천 시민들은 인천지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자료제공 · 인천국제교류센터(441-8167, www.icice.or.kr)

인천국제교류센터 미니소식

중국·태안 중소도시 국제교류대회 참석

최경보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시 대표단은 9월 22일~24일 중국 산둥성 태안시에서 열린 '중국·태안 중소도시 발전 국제교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산둥성 인민정부가 주최했으며 세계 10개국 60개 도시 200여명이 참가해 '화합의 도시건설, 지속가능 발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최 대표이사는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둥의 대도시, 중소도시와의 협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시를 알리고 중국 산둥성 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당신의 발이 돼 드리겠습니다

십정동에 사는 경광점 씨(47세)는 요즘에야 좀 바깥으로 다닐 만하다. 2002년 사고로 장애를 입은 남편의 치료차 거의 매일 산재병원에 가야하는데 지난 6월에 생긴 장애인 콜밴 덕분에 오가는 길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회구성원의 일반적인 활동에 속하는 종교, 여가, 쇼핑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와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글·정경애(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자유사진가)

전화 한통이면 Door to Door 장애인콜밴

지난 6월 5일 장애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시 교통공사에서 장애인 콜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시 교통공사는 6인승 차량 16대와 9인승 차량 4대 등 20대의 특수차량을 마련해 인천시내는 물론 장애인이 원하는 곳이면 우리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 했다.

장애인콜밴에는 모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했다. 그리고 장애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사회경험도 풍부한 50세 이상의 운전자를 채용했다. 그들은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모신다. 콜밴을 이용한 홍민상씨(부평구 십정동)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는 휠체어를 싣고 내리는데도 무척 힘들었고 운전기사의 눈치를 봐야했다"며 "장애인콜밴의 기사분들은 모두 친절하데다 요즘까지 저렴해서 치료받으러 다니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한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교통공사의 장애인콜밴 운영센터로 연결된다. 센터에 근무하는 3명의 상담봉사자는 장애인의 위치와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네비게이션을 통해 20대의 콜밴 중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에 연락을 취해 이용자를 모시도록 한다.

장애 1~2급,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이 주 고객이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불러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인천시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서 콜 번호도 1577-0320으로 정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당 760원으로 일반택시의 40% 수준이라 저렴하다.



개인 비서가 따로 없네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서비스는 단순히 장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원업무보조, 출·퇴근보조, 외출지원, 병원이용보조, 교육, 직업훈련, 재활치료, 종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눈과 손이 돼주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쇼핑을 함께 가기도 하고 민원서류를 같이 작성해 주기도 하는가 하면 은행에서 돈을 맡기고 찾는 일에 이르기까지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가리지 않고 보조해 준다. 그러니 장애인들에게는 개인 비서나 보호자와 다름 아니다.

집에서 책의 바다에 빠~져 봅시다

움직이는데 불편이 많은 장애인은 책 한권 빌려 읽으려고 도서관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도서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도서대출을 신청하면 대출한 도서를 무료로 집으로 보내주는 '장애우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이동이 어려운 지체·뇌병변 및 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나 가족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자료실의 직원에게 원하는 도서의 관외 대출을 신청하면 자료실에서 택배로 집까지 책을 배달해 준다. 도서를 반납할 때도 대출할 때 받은 박스에 책을 넣어 택배사를 이용해 책들로 보내면 된다.

대출조건은 일반 관외대출과 같다. 대출을 위해서는 관외대출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외대출회원 신청서를 작성해 일반신분증, 장애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이 한번에 5권의 책을 15일간 대출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일주일 연장도 가능하다.

(문의 중앙도서관 420-8425, 8437)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차량 10대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1시간 전에 미리 심부름센터(876-4343)에 전화로 접수하면 이용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을 섭외해 연결해 준다.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차량도 구비돼 있어 시각 장애인 뿐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택시요금의 40% 정도로 저렴하다.



대중교통이라 맘까지 편한 장애인셔틀버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8대 운영하고 있다.

버스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장애인복지관,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노들담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들이 직접 운영한다. 중남부, 서북부, 동남동, 계양, 남구권역 등 5개 권역에 7개 코스로 나뉘어 운행되는데 초저상버스, 대형버스, 중형버스 등에 모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남동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만난 김입분씨(남동구 만수동)는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하게 아니다”며 “셔틀버스 코스를 잘만 알고 환승하면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노선 별로 운행시간이 각각 다르다. 운행노선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의 교통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만 하세요,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동봉사대

정신지체 장애로 인혜학교에 다니는 태영이 엄마는 태영이가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고 싶어하자 걱정이 많았다. 방과후 교실 후에는 학교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태영이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 엄마 역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태영이를 데려올 수 없기 때

문이다. 엄마의 걱정을 덜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자원봉사자 이명자씨. 대한생명 FP인 이씨는 직업 특성상 시간 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방과후 교실을 마친 태영이를 엄마의 일터까지 데려다 준다. 이렇게 태영이를 돌본지 벌써 일년이 훌쩍 넘었다.

이씨가 속해 있는 곳은 (사)섬김과 나눔회(약칭 섬나회·대표 이한덕). 지난 91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재활 그리고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단체를 설립한 이래 장애인의 차량이동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500여명에 이른다. 자영업자, 주부,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회원들은 시간이 닿는 대로 종종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차량봉사를 하고 있다.

등하교나 출퇴근은 물론 병원치료, 민원업무 등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면 누구나 섬나회(www.sumna.or.kr, 555-4138)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섬나회의 대표 이한덕 목사는 “장애인콜밴, 심부름센터 등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저희는 장애인은 물론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환자 등도 이용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고 소개했다.

섬나회의 장애인 이동 서비스는 한달이면 1,500건에 달한다. 이용료는 따로 없고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나회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섬나회는 접수를 받으면 봉사가 가능한 회원을 몰색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 준다. 섬나회에서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환영이다.



하루나들이, 맡겨주세요 민간방범기동순찰단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어느날. 만수주공아파트 단지 내의 어느 주차장이 아침부터 떠들썩하다. 개인택시들이 여러 대 들어오기가 싫더니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속속 도착한다. 개인택시에는 ‘장애인 애기봉견학 0호’라는 명찰이 붙어있다.

이날 행사는 민간방범기동순찰대 남동연합회(회장 추명호)가 남동모범운전자지회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장애인 나들이 행사. 민간방범기동순찰대는 공원, 학교 주변 등을 돌면서 야간순찰 등을 하는 봉사 단체로 이번에는 남동구 장애인협회에 속해있는 장애인들을 모시고 김포의 애기봉을 견학하는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좋은 행사 취지에 공감한 인천남동모범운전자지회(회장 황태섭)에서는 모범택시 운전자 20명이 뜻을 같이해 택시를 준비했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지원을 나왔다. 택시 한대에 장애인과 어르신을 모시고 모범운전자와 자원봉사자가 1개조가 되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나들이를 나섰다.

김포에 도착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애기봉에 올랐다. 복讖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한창 때 나들이를 다녔던 기분을 다시금 느껴보기도 했다.

평소 외출이 힘들었다는 이순규 할머니(남동구 만수동·83세)는 “이렇게 편하게 나들이를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며 활짝 웃었다.

할머니가 늘 환한 웃음을 지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 어르신들도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함께 나누는 기쁨, 자원봉사 하세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모아모아 복지누리(www.bokjinuri.or.kr)’ 사이트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와 연결해 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이 사이트에 접속해 ‘대상자추천’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거나 전화(883-1773)로 접수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자를 찾아 연결해 준다. 반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거나 후원자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 역시 이 사이트에 접속해 ‘희망합니다’ 게시판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우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http://vt.incheon.go.kr>)를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참여마당 게시판에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기관의 내역이 지역별, 자원봉사 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편리하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 역시 자원봉사신청 게시판을 통해 지역별, 분류별로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만족 실천운동 추진

우리는 고객과 함께하는 감동시정을 펼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3대 고객 만족(CS·Customer Satisfaction) 실천운동'을 벌여왔다. 밝은 미소(Smile), 친절인 인사(Salute), 신속한 업무처리(Speed)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제공한다 는 방침이다. 법정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인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절반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다. 특히 교통, 장애인, 환경오염, 쓰레기 무단투기, 부정불량식품 등 시민불편 신고센터 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즉시 처리 를 원칙으로, 인터넷 민원은 2일 이내 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혁신본권담당관실 440-3540

인천공항, 아시아 최고공항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월12일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2006 타임 리더스 트래블 초이스 어워드'에서 아시아 지역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2006 최우수 아시아공항(2006 Favorite Asian Airport)' 부문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타임지는 2001년부터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항공사, 호텔, 여행지, 신용카드 등 4개 분야별로 11개 부문에 걸쳐 3위까지 순위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올해 3월 국제항공운송협회와 국제공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05년 세계 공항 고객만족도 조사(AETRA)에서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

했고 5월에 세계항공교통학회 주관의 2006 공항효율성 대상에서 아태지역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의 _ 인천국제공항공사 1577-2600

화장물 매년 증가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우리시의 화장물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49.7%(5천224건)에 머물던 우리시 화장물은 2002년엔 56.5%(6천31건), 2003년엔 62.8%(6천815건), 2004년엔 65.6%(7천196건), 지난해 67.7%(7천641건)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74.8%)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며 전국 평균(52.5%)은 물론 서울(64.8%), 경기(60.2%)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다. 우리시는 올해 화장물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에 납골 2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73

삼산2택지~부천 중동대로 준공

부평구 삼산2택지 지구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을 잇는 광역도로가 지난 10월12일 준공됐다. 지난 2004년 1월 착공돼 197억 원이 투입된 폭 30m, 총길이 440m, 6차선으로 개설된 이 도로는 부평구 삼산동, 갈산동과 부천시 상동 지역을 잇고 있다. 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그동안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차량소통에 어려

움이 있던 길주로와 중동 IC부근, 상동 사거리의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종합건설본부 440-5221

함허동천 인공폭포 조성

강화군은 지난 10월 11일 함허동천에서 군 관계자와 주민,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폭포 준공식을 가졌다. 이 인공폭포는 높이 3m, 폭 20m 규모로 20여개의 LED조명이 설치돼 야간 경관을 연출하게 되며 폭포 주변에는 벤치 등 휴식공간이 조성됐다. 함허동천은 연간 18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강화의 손꼽히는 국민관광지다.

문의 _ 강화군 930-3114

신한은행, 아시안게임 유치 후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2014년 아시안 게임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우리시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에 후원금 10억원을 기증했다. 신한은행·카드 는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와 지난 10월12일 갯벌타워에서 '신한-인천사랑카드 발급 조인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유치위원회는 지난 4월 농협중앙회 인천지부로부터 신규상품인 '2014인천아시아드예금' 상품과 관

련해 10억원을 후원을 받은 바 있다.

문의 _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 440-4164~5

환경테마 복합단지 건설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 종합환경연구단지에 2011년까지 1만평 규모의 환경테마복합단지(에코커뮤니티)가 들어선다. 환경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을 위한 환경테마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총 1512억원이 투입돼 기술개발연구동, 야외시험방, 제품생산센터, 기업지원센터, 종합환경센터, 환경교육관 등 시설이 마련된다.

문의 _ 환경부 02-2110-6576

인천대-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술협정

인천대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너디노(CSUSB)와 학술교류 등에 관한 협정 조인식을 체결했다. 박호근 총장은 10월 28일 샌 버너디노의 Albert K. Karnig 총장과 협정 조인식을 갖고 대학원생 복수 학위제와 학술교류에 대한 일반 협정과 세부 협정을 맺었다. 샌 버너디노는 23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 하나로 인문, 경영, 자연, 교육, 사회 등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돼 70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하는 이 학교는 교직원 3천명, 학생 수 1만7천여 명에 이른다.

문의 _ 인천대학교 770-8114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건립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화물자동차 전용 복합휴게소 건립공사'가 지난 9월27일 공사를 시작했다. '인천항 화물자동차 전용 복합휴게소'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SK(주)의 합작법인인 SKCTA(주)가 중구 신흥동3가 아암물류단지(舊 남항 제1준설도 투기장)내 1만7천여평의 대지와 1천7백여평의 연건축면적에 오는 200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추진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화물자동차 주차장 381면과 운전자 휴게소, 정비소, 주유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44

인천의 참 얼굴들

우리는 지난 10월11일 제28회 시민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사회공익 부문 6명, 효행 1명, 산업발전 3명 등 모두 10명이다. 공익상은 수시로 양로원을 찾아 위문 공연을 하고 학교, 복지관 등에 전통음악을 보급하고 있는 국악인 이치옥(49)씨가 선정됐다. 효행상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는 등 노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있는 이균익(41)씨에게 돌아갔다. 사회공익 부문 중 새마을은 김기화(56), 봉사는 김영초(55), 공익은 엄명용(60), 환경은 최종태(66), 특별은 김경식(40)씨가 수상했다. 산업발전 부문 중 상공업은 김광식(65)·송영배(54), 농수산은 김기복(54)씨가 수상했다.

이번 시민상은 18개 기관·단체에서 24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경합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후 2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시민상을 수여받았다. 한편 같은 날 향토문화 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인천문화상도 함께 수여됐다. 문학부문에 임평모(75), 미술부문에 박창한(70), 공연예술부문에 김종형(46), 체육부문에 최수길(56)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4



사회공익 부문
 공익 | 이치옥, 새마을 | 김기화, 봉사 | 김영초, 공익 | 엄명용, 환경 | 최종태, 기타특별 | 김경식

효행상
 효행 | 이균익

산업발전 부문
 상공업 | 김광식, 상공업 | 송영배, 농수산 | 김기복

인천시민의 날 축제 개최



우리는 제42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행복한 가정, 인천사랑 대축제'를 지난 10월14일 오후 2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가족합창대회, 가족화합 한마당, 청소년 대축제 등이 열렸다. 부대 행사로는 페이스페인팅, 가족줄넘기, 가족홀라후프, 무료 건강검진 등이 마련됐다. 우리는 식전행사로 총 7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인천삼산월드체육관 개관식도 함께 거행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인천의 역사성과 시민들의 애향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인천도호부대제가 열려 국악공연과 민속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4

'서곶들노래' 동상 수상

지난 9월30일부터 31일까지 전라북도 정읍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리시 대표로 출전한 '인천서곶들노래'가 동상을 수상했다.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문화관광부, 전라북도 등이 주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청소년 17개 팀과 성인 26개팀이 참가해 민속놀이, 민요, 농악, 무용, 민속극 등을 공연했다. 4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서구향토문화보존회는 '서곶들노래'로 단체부문에서 국립국악원장상 동상을

을, 개인부문에서 회원 이순배씨가 문화관광부장관상 연기상을 수상했다. '서곶들노래'는 지역농민들이 오래전부터 모심기와 김매기를 할 때 한 해 벼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부르던 농요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32

국내최대 KD센터 준공



GM대우의 KD(Knock Down)센터 준공식이 10월19일 인천항 내항 4부두에서 열렸다. KD센터는 해외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생산할 수 있도록 완성차의 부품을 조립 이전 상태로 포장해 수출하는 곳으로 GM대우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5개 나라에 KD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인천항에 들어선 KD센터는 연간 완성차 57만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장, 수출할 수 있는 2만 2천평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항 KD센터 운영으로 KD 수출물량 확대는 물론 KD사업 운영비용과 품질 경쟁력 확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효과까지 기대된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50)

주말에도 보건소 진료

우리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의 주1회 평일야간 및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해 임신부의 건강

지원 및 영유아 예방접종 등 임신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야간진료는 오후 9시까지 내과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가 매주 수요일, 동구는 매주 금요일, 계양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진료를 실시한다.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는 임신부 등록 및 관리, 산전 및 산후관리, 영양제 배부, 건강검진, 영유아 등록 및 관리 등을 실시하며, 군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구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사전에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의 _ 시 보건정책과 (440-2733)

기업은행 '인천사랑힘통장' 판매

기업은행 경인지역본부는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인천사랑힘통장'을 지난 달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가입계좌 연간 평균잔액의 0.1%를 고객부담 없이 기업은행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으로 출연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등이 가입할 경우 가입계좌 연간 평균잔액의 0.05%를 추가로 출연하게 된다.

인천의 특징을 반영한 독특한 통장 디자인과 통장명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며 예금금액이 많을수록 지역에 출연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지역민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_ 기업은행 경인지역본부 (501-4233)

청라지구에 중동문화원 건립

청라지구에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동문화원이 국내 최초로 건립될 전망이다. 안상수 시장과 한덕규 한국중동협회 회장은 지난 10월9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중동문화원 유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내년 6월까지 청라지구 내 한국토지공사 홍보관에 중동문화원을 임시 개원해 중동 문화 관련 물품 1천50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중동 자본을 본격 유치해 오는 2012년까지 청라지구 제 5호 근린공원에 독자적인 문화원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중동문화원에는 여학실, 도서실, 예술품 전시실을 비롯해 중동지역 통역지원과 시장조사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서비스센터도 함께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중동문화 체험시설과 중동지역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도 갖추게 된다.

송도TP 산업기술단지 추가 조성

송도테크노파크에 50만9천평 규모의 산업기술단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1단계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25만9천평을 올 연말께 착공해 오는 2010년 12월 준공하고 2단계로 11공구내 25만평을 오는 2009년 착공해 2014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전자·정보,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기타 신기술융합분야와 기존 테크노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신소재 등이다. 송도테크노파크는 2002년 송도국제도시 2공구 13만7천여평에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해 현재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연구소 35곳 등이 입주한 상태다.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16일 산업자원부 산하 민간경제단체인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FORCA는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정부 IR행사 위탁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및 외국투자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부터 국내·외 투자유치관련 설명회, 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여러 행사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각종 정보교류 및 홍보를 보다 입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청 개청 3주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3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13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렸다. 기념식 후에는 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15개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 등을 초청해 '인천경제청 개청 3주년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 투자 옴브즈만 안충영 경제학박사를 초청해 '글로벌시대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16일에도 개청 3주년을 기념해 IBM, LG CNS, SKT와 u-City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향후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이 인천을 주목한다

우리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뉴욕,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에 나섰다. 유치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구도심재



생사업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투자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많은 투자의향을 확인했다. 그 중 유대인계 뉴욕의 거부로 알려진 잭 조젠은 용유·무의지역에 3~4조원 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테마형 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장은 인천과 공항, 항만, 관광, 첨단기술, 물류산업개발, 교육, 예술, 스포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를 맺기로 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그밖에도 인천시공고를 맡고 있는 시티그룹 사장 로버트 드러스킨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투자의사를 밝혔다. 또 메릴랜드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한인경제인들을 만나 인천의 비전을 알리고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한편 천명수 정무부시장은 9월21일부터 10일간 시장개척단 단장으로 북유럽 3개국 수출상담회에서 연간 7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 이와함께 유관인사 면담을 통해 인천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과 2009년 열릴 세계도시엑스포 등을 홍보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아시안게임 유치에 힘 모아야

‘담장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도 출신 유천호 위원장은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때문에 인천의 외적인 성장 못지않게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문화, 복지, 및 교육도시를 구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대 1기 문교사회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요?

문교사회위원 모두가 초선의원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소속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위원장이라 현장 활동과 민의 수렴에 강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각오로 일할 것인지요?

위원회 소관업무가 여성·보건·복지·문화·관광·체육·교육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하고 삶의 질과 밀접한 만큼 생활속에서 인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렴된 민의에 대해 시 집행부 및 동료 의원 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265만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정책 입안에 주력할 것입니다.

현안 사업 중 특히 역점을 두고 힘쓸 의정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온 시민의 뜨거운 관심사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2007년 4월에 결정됩니다.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된다면 생산유발효과가 12조 9천억, 부가가치효과가 5조 5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함으로써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인천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문화, 복지, 교육 등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인천의 전망과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많은 변화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장과 변화 못지않게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 복지 및 교육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살고 싶은 인천,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각 분야의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이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프로필

경기일보 편집국부국장, 상무이사 역임/인천시 언론인클럽 이사/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재)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 성공에 하나가 되길

인천 토박이 강석봉 산업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인천에 대한 애정을 호소했다. 아직 인천이 여러 분야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보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강조하며 그 중심에 산업위원회가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무엇보다 산업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요?

위원들이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즐겁고 신명나는 산업위원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선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갈등 없이 의견을 모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힘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또 시 집행부의 사업들을 이유 없이 부정적 시각만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중요사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시정부에 밀도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안 사업 중 특히 역점을 두고 힘쓸 의정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인천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뜻을 함께하지만 재개발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난개발의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성공적인 구도심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망과 산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북관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기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 인천시가 항상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공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을 비롯해 관련 학계, 재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 중심에 산업위원회가 핵심이 되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지역출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의식이 부족하고 애항심이 적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만큼 발전가능성도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시민들 여러분이 ‘인천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신다면 인천의 발전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주요 프로필

송도 중·고교, 인하대학교 졸업/인천전문건설협회 기술 자문위원/(사)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자문위원/건설산업활성화 추진 소위원장/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장

구도심 개발로 도시균형 이뤄야

김을태 위원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구도심권 주민들을 위해 문화기반시설도 함께 보강해 나가야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심재생’ ‘재건축 사업’ 등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생각하는 위원회 운영방향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은 베드타운, 공해도시, 정주의식이 없는 도시, 일시 거쳐가는 삭막한 도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개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개발, 구도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구도심권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 중 특히 역점을 두고 힘쓸 의정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안사항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천지역 관공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하도급 확대 시행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과 수주확대를 위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주공사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또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구도심 기능의 재창출을 목표로 종합적 도시균형 발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는 예산심의,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조정하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건교위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으로 한정된 시 예산과 행정력이 고루 미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은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사업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조례안 정비, 예산확보 등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전할 말씀을 해주십시오.

몇 년전부터 투기조짐,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보상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의 고른 발전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프로필

선인고등학교 졸업/남구의회 2대, 총무위원장,3대 부의장(전)/수도권 교통조합 부의장(현)/황해도민회(중앙) 자문위원(현)/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2기 건설교통위원회위원(전)

시의회 소식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창규)는 2006년 9월 26일 14:00 제149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2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3일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



한 시장질문을 통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으며, 200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기타 안건 24건을 심사하여 가결 22건(원안가결 6, 수정가결 14,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2)과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처리했다.

또한 2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박승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채택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촉구 결의안’은 1968년 12월 개통된 이래 경인고속도로는 38여년간 유료로 운영되어 투자비의 307%에 해당하는 7,769억원이 회수되었으며,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 유료로 운영됨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즉시 폐지할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용근 의원 외 16인이 발의하여 채택한 ‘중국의 고구려사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중국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 측에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역사왜곡을 적극 저지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9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승희, 이은석, 김용재, 최종귀, 김성숙, 배영민, 지정구, 성용기, 문희출 의원 등 9명이 선임됐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성숙 의원이, 간사에는 최종귀, 배영민 의원이 선출됐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실정에 맞지 않는 300여건의 조례 발굴 개정 작업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김성숙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지방자치의 꽃인 자치입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향진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인천 관내 총 30개의 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전(全)의원이 추석까지 함께 참여해 이루어지며, 소외된 각종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는 명절의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유천호)는 지난 9월28일 노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인천광역시노인연합회 이기인 회장과 각 군·구지회장 등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천호 위원장은 각 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확대와 노인회 활동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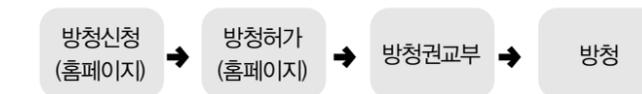
현재, 인천광역시 노인회연합회는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회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방청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방청은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에서 시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을 일반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입니다.

- **의원소개 방청** : 시의원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시의원의 소개를 얻어 신청하면 됩니다.
- **일반 방청**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입니다.

1. 방청 절차



- 방청 신청자 - 일반 방청 신청(개인) :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당일 신청의 경우 본회의 개의 전 직접 방문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방청권) 작성
- 단체 방청 신청(10인 이상) :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 방청 문의 -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440-6064) - 방청석 112석,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마감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 '경로우대'

생활위생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 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령화에 따라 노년부양비(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기준 12.6%로 10년전인 1995년 8.3%에 비해 4.3%p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년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8%로 2003년 28.7%에 비해 1.1%p 증가하였고 65~79세 인구 중 향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43.3%에 이르지만 쉽게 일자리를 얻기는 힘든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응해 우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공원관리, 주차장관리 등 공익형 일자리를 비롯해 유아강사, 노·노케어와 같은 노인의 경륜과 인력을 활용하는 교육복지형 일자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노인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가 하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개별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던 기관들을 '노인일자리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노인 취업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뉴실버 클러스터 혁신 브랜드'를 추진한다. 노인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행정시스템을 혁신해 노인 일자리 창출의 혁신명품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뉴실버 클러스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관을 연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계획 및 집행, 노인취업 교육, 상담, 사업평가 등 각 단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개념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관 기관들이 On-Line, Off-Line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일자리 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뉴실버클러스터 준비단을 구성하고 클러스터에 참여할 기관을 선정하고 업무 역할을 논의해 결정한다. 뉴실버 클러스터에 참여할 기관이 확정되면 참여기관과 협정을 맺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노인인력 고용알선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을 평가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착시킨 후 각 군구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노인취업정보센터를 기반으로 관내 노인일자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뉴실버 클러스터 기구를 조직해 뉴실버 세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참여와 활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503)



무엇을 먹어야 하나?

글 · 김용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1년 사이에 참으로 많은 식품안전사고가 있었다.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고, 생식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비타민C 음료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장어에서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급식사고가 생겨 학생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최근에는 폐광산 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 때마다 아는 분들에게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걱정스럽게 나에게 묻곤 한다. "도대체 무얼 먹어야 하나요?"

언론에서 보도가 나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기는 하지만 잠재의식 저 밑에는 식품에 대한 불신이 차곡차곡 쌓여 가리라 생각된다. 그래서인가 요즘은 정상적인 먹을거리는 뒷전이고 특이한 먹을거리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상표 앞에 '무농약', '유기농', '청정', '최소한 '저농약' 정도의 표시가 들어가야 팔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관심이야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인 걸 어쩌랴 싶지만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몸에 좋다면 천연기념물 먹기도 마다하지 않는 어른들,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머니들의 욕심, 무언가 약이 되는 것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들,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지금 우리 사회는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먹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학설을 말하며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듯 TV에 나와 자랑스럽게 이런저런 만병통치형 식품을 말하는 연예인을 볼 때면 우리 사회가 너무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몇몇 사례를 보자. 건강을 위해 곡류 등을 날로 먹는 생식은 제조과정에서 각종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무설탕, 무가당이라 표기된 식품은 설탕이 없다는 말이지 다른 종류의 당이나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아침마다 한 주먹 가득 먹는 비타민제와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건강염려증 때문에 불필요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주부들이 장을 볼 때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항상 농약은 없나, 중금속은 없나, 식중독균은 없나를 걱정하며 식품을 고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부들은 정성껏 고른 식품을 집에 가지고와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방치해 버리고(뒷 베란다와 냉장고는 만능이 아니다), 고기와 야채를 함께 손질한다.(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내 몸이 서늘하면 음식도 절대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앞서의 식품을 고르는 노력 모두를 허사로 만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식품은 무엇을 골라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싼 가격의 고급 식품(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모르지만)이 아닌 평범한, 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도 명품(?)으로 변신시키는 방법이 있다. 식품 취급의 원칙 세 가지(잘 씻고, 잘 익히고, 잘 보관하기)를 잘 지켜만 준다면 농약도, 중금속도, 식중독균도 모두 비껴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따져가며 고르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과 양심을 지키며 농사짓는 농민과 회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언론에 보도된 몇몇 식품의 잘못된 분명한 바로잡아 나가는 사회적 노력이 따라야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말고 한번 크게 믿어주고 너무 염려하지 말며 호탕하게 마음을 열고 원칙 세 가지를 지켜가며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건강식품보다는 편안히 먹는 밥 한 그릇이 훨씬 보약노릇을 할 것이다.

앞에서 친구가 물어본 무엇을 먹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렇다. "세상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먹을 게 없겠어요. 마음 편히 드세요. 단 원칙을 지키고, 욕심을 버리고요. 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일 뿐입니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 로마서 12장 15-16절 -

*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끔 읽어보곤 한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을 때마다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울했던 마음이 편해짐을 느끼게 된다. 나를 높이는 무척 어려우나 지금보다 조금만 눈을 낮춰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공직에 있는 동안은 재물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하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막상막下

이 달의 공연

시립무용단 국수호의 '춤극' 명성향후

94년 국립극장에서 국수호 총 30년에 창작돼 공연된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을 부각시켜 무대화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94년 최고의 작품상을 받았다.

중요제례악과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합성하여 비운의 왕비를 극대화시키는 음악적 실험에 탁월성을 보였고 충극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시립무용단은 창단 25주년을 맞이하여 초청작품 <명성향후>를 통해 또 다른 한국 창작 춤의 맛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_ 11월30일(목) 7시30분 / 12월1일(금) 7시30분
2일(토) 11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438-7774)

시립극단 김정하는 날

<김정하는 날>은 전라도의 한 시골마을에서 김정하는 날을 배경으로 가족과 이웃의 애환을 담백하게 풀어낸 창작극이다. 걸쭉한 호남사투리와 등장인물들의 질펀한 대사 속에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족과 이웃간의 소중한 사랑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감장 깊지처럼 맛깔스럽게 보여준다.

일시 _ 11월24일(금)~12월3일(일) /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공연 없음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_ 인천시립극단 (438-7775, www.artincheon.or.kr)



opera AIDA

인천오페라단은 이 가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디다>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러시아의 떠오르는 신예 지휘자 빅토르 콜리코프*가 지휘봉을 잡고 이태리 밀라노의 스키타극장, 세계주오극장에서 '아이디다' '토스카' 등 전문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인 테너 오르페오 자네티가 무대에 선다. 또한 전 세계의 최고무대에서 '아이디다' '투란도트' '오텔로' 등 수많은 오페라의 배역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아이디어의 엘리사베타 비델리아 등 세계적인 성악가와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한다.

일시 _ 11월5일(일)~10일(금) (6일 공연 없음) 오후 7시30분 (11월7일(화) 오후 3시,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티켓 _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문의 _ 인천오페라단 (429-0248)

수능 탈출 COZ 콘서트

코즈는 2000년 결성된 크로스오버와 퓨전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는 크로스오버밴드다. 멤버끼리 서로 일치된 호흡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연주는 국내 밴드계에 새로운 장르의 물결을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윙, 라틴, 팝, 펌키, 세미클래식, 상송, 뮤지컬, 뉴에이지 음악, 국악 등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으로 새로운 사운드를 창출하며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이다.

일시 _ 11월30일(토)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티켓 _ 전석 무료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 (760-3453~6/www.iecs.go.kr)



94년 국립극장에서 국수호 총 30년에 창작돼 공연된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을 부각시켜 무대화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94년 최고의 작품상을 받았다.

일시 _ 11월30일(목) 7시30분 / 12월1일(금) 7시30분
2일(토) 11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438-7774)

2006 인천 & 아츠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드레스덴 슈타츠포니케가 들려주는 브람스와 베토벤의 진수



2005년 미주 8개 도시 순회공연과 유럽 연주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정명훈과 458년 전통의 드레스덴 슈타츠포니케(Sachsische Staatskapelle Dresden)가 6년 만에 한국 무대에 선다.

음악계의 거장들이 이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거쳐 가면서 '살아있는 사임양악사'라고도 불리는 드레스덴 슈타츠포니케가 들고 온 레퍼토리는 클래식 음악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 e단조>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 단조 '운명'>이다.

모차르트, 파가니니, 멘델스존, 슈만, 리스트 등 명작곡가들과 함께 지난 다섯 세기 동안 서양음악사의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드레스덴 슈타츠포니케에 대해,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지휘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로 그런 오케스트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영혼 깊은 곳의 소리를 이끌어내는 지휘자' 정명훈과 어떤 오케스트라도 따를 수 없는 풍부한 현의 울림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슈타츠포니케, 그리고 클래식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베토벤과 브람스 교향곡은 450 여년 이란 시간을 뒤어넘는 깊은 감동의 향연을 펼칠 것이다.

일시 _ 11월19일(일) 오후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티켓 _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20)

11월

부평문화사랑방 금요상실무대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정기 상설공연을 갖는다. 모든 공연은 선착순 무료입장이다.(문의 506-5996)

- # 11월 3일(금) 오후7시 - 양혜진의 춤소리 무용
- # 11월10일(금) 오후7시 - 최희용의 오리타노와 머리가 좋아지는 클래식
- # 11월17일(금) 오후7시 - Mr. Gong jazz 콘서트
- # 11월24일(금) 오후7시 - Mr. Gong jazz 콘서트
- # 11월31일(금) 오후7시 - 기타리스트 황민용, 아르미클래시 기타 앙상블



7 제10회 인천신형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인진시 청소년회관(465-6827)
제7회 인천 중고생 전통음악경연대회
오전 9시 / 인창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 / 420-8268
오페라 (아이디다)
오후 3시,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10만~2만 / 인천음악문화원 429-0248

13

14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학공기념 축하공연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0만원, 10만원
70-8051
제논대 생활음악과 정기연주회
오후 8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890-7290

20

21 제24회 인천합창제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인천음악협회 876-8646



28 제17회 인천교린 맨스스포츠 정기발표회
오후 6시30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
무료 54~1304

1

제4회 인천유스타이키 앙상블연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천원
NPE(011-347-0040)

2

인천시립교향악단의 Brunch with orchestra concert
오전 1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 2천원
2006 하반기 무용문화제 합동공연
오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장대극단포준회 873-9859

9

오페라 (아이디다)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10만~2만 / 인천 음악문화원 429-0248

16

인천시립교향악단의 Brunch with orchestra concert
오전 1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 2천원
2006 하반기 무용문화제 합동공연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453-1232

22

고3수험생 음악회
오전 10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천원 / 인천시립합창단 420-2784
인창예고합창곡의 밤
오후 7시30분
무료 433-9142
아이디다 정기연주회 (베히아 도와줘)
오전 10시20분 1시20분
사리재극단 1만원 016-774-0014

29

제4회 인천유스타이키 앙상블연주회
오후 7시
5천원
NPE 011-347-0040

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김정하는 날>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1만5천원, 5천원 420-2790

3

연극 (영재이 유씨)
오후 8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2만원, 1만원
442-8017

10

초등교사음악회
오후 6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
무료 / 462-0105
어린이뮤지컬 (베히아 도와줘)
오전 10시20분 1시20분
합동공연 / 1만원 016-774-0014
오페라 (아이디다)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10만~2만 / 인천음악문화원 429-0248

17

정애우와 함께하는 걸리본스 오케스트라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만원, 1만원
세이브가이드 010-7388-9862
제5회 교사전통음악 합무용발표회
오후 3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
무료 463-9833
어린이뮤지컬 (베히아 도와줘) (-18)
평일 오전 10시20분 1시20분
토요일 오후 2시, 4시 / 개양청소년회관 1만원 016-774-0014

24

제27회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420-2781
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김정하는 날>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원, 5천원
420-2790

30

인천시립무용단 <춤극 명성향후> (-12/2)
오후 7시30분
1만원, 5천원
438-7774

4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투나잇 /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3만원 1588-2341
연극 (영재이 유씨)
오후 7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2만원, 1만원
442-8017

11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오아시스세트 습격사건>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1588-2341
어린이뮤지컬 (베히아 도와줘)
오후 2시, 4시
합동공연
1만원
016-774-0014

18

인천시립교향악단 <청소년 문화제(미야> 오전 10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만원 420-2788
오페라 (시림의모험 배스트영웅왕 OST)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2만원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어린이뮤지컬 (하복이아기)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1588-2341

25

제5회 매일클래식(스페인어의 향기)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매일예술기획 02-586-0945
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김정하는 날>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원, 5천원
420-2790

26

제5회 매일클래식(스페인어의 향기)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매일예술기획 02-586-0945
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김정하는 날>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원, 5천원
420-2790

5

미추홀기타합주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010-6207-3532
연극 (영재이 유씨)
오후 3시, 6시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 2만원, 1만원 442-8017
오페라 (아이디다)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만~2만 / 인천음악문화원 429-0248

12

웃찾사: 오~개그코리아
오후 3시,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5천, 4만5천
1586-6651
타악기 귀족독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011-9137-2774

19

드레스덴슈타츠포니케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2만원
인천8이츠 사무국 420-2027
노래하는 미추홀합창단 연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522-2604

25

제5회 매일클래식(스페인어의 향기)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매일예술기획 02-586-0945
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김정하는 날>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원, 5천원
420-2790

28

제17회 인천교린 맨스스포츠 정기발표회
오후 6시30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
무료 54~1304

28

제17회 인천교린 맨스스포츠 정기발표회
오후 6시30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사리재홀
무료 54~1304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영화 속의 인천 11월2일(목)~11월9일(목) / 인천신세계갤러리



영화 속에서 인천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돼 왔을까? 서양 근대식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인근의 신포동, 자유공원, 월미도, 인천항, 그리고 철거 이전의 수도권산 달동네 등이 영화의 로케이션 장소로 각광 받아왔다.

1999년에 상영된 <북경반점>부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시월애>, <엽기적인 그녀>, <파이란>, <범죄의 재구성>, <피도 눈물도 없이>, <실미도>, <고양이를 부탁해>, <슈퍼스타 감사용>, <아수>를 비롯해 최근에 개봉되었던 <천하장사 마돈나>까지 12편의 영화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천의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용백씨가 실제 현장을 답사 한 후 영화의 장면과 비슷한 이미지로 촬영한 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이 전시회를 통해 항구와 공업단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인천이란 도시가 영화 속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놉시스, 영화 홍보물 등이 전시되고, 전시장 한편에는 생활사자료 수집가 최용규씨가 그동안 소장해 온 영화티켓, 영화홍보 인쇄물, 영화관련 근대자료 등도 함께 전시된다.

검여 유희강(劍如 柳熙綱) 서거 30주년 기념특별전

11월6일(월)~11월16일(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중앙전시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문화예술 대표인물 조명사업 두 번째로 검여 유희강(1911~1976) 추모 유묵전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검여 유희강 선생의 서거 30주기에 즈음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그간의 전시와 학술연구 성과를 토대로 검여 예술 세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20세기 근현대 한국서단의 전개 맥락과 검여의 생애 및 작품 시기를 비교하면서 그림과 글씨를 넘나드는 검여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재조명한다.

전시작품은 '계축묵화', '나무아미타불', '관서약부' 등 글씨, 제발, 문인화 및 묵화 등의 그림 등 총 260여점이다. 장르별 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여 서예의 시기별 형성과정과 글씨와 그림, 서예와 미술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된다.

* 학술심포지엄 (주제 : 검여 유희강의 생애와 예술세계) 11월 11일(토) 오후 1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 송도고 개교100주년기념
송도동문미술전 (469-1836)
11월3일-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제12회 예촌전 정기전 (016-265-0412)
11월3일-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제9회 현대도예가협회전 (561-2924)
11월10일-1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제22회 인천조각가협회전 (231-0235)
11월10일-1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신세계갤러리 개점기념전 (430-1157)
11월14일 ~11월22일
신세계갤러리
- 6대 광역시 및 인천예총예술교류전 (868-7196)
11월17일-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제23회 인천대 미술학부졸업전시회
제26회 재학생 과제전시회 (770-8560)
11월17일-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미추홀 전시실
- 고진오 서양화전 (430-1157)
11월23일 ~11월29일
신세계갤러리
- 제2회 인천·제주 문인화 교류전 (017-336-4107)
11월24일-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제4회 '취' (자연)전 (463-5812)
11월24일-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제8회 이상영개인전 (425-0230)
11월24일-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2006 불여름가을겨울전 (010-2323-6877)
11월24일-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06 인천미술은행 작품 공모 안내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시각예술 작가에 대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미술은행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미술은행에서 구입한 작품은 향후 대외·전시활동 등을 통하여 시각예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32-455-7134, 7136)하면 된다.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연극축제 '11월의 만남'은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으로, 11월 첫째 주(4일)부터 셋째 주(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첫번째 만남 백재현의 창작뮤지컬 <루나틱>

마법적인 힘의 상징인 달의 신(Luna)에서 파생된 루나틱(Lunatic)은 미치광이, 정신이상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병원 그 곳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곳이 아니다. 살짝 맛이 간 사람들의 행복한 세상이다. 여기 세상에서 하나 뿐인 정신 병동이 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매력적인 굿 닥터들이 반겨주는 이곳. 어째 그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루나틱>은 한국적 정서의 탄탄한 이야기와 구성력 그리고 연기력으로 조화를 이룬 창작뮤지컬로 지금까지 30만 관객을 미쳐버리게 만든 작품이다.

앞만 보고 달리며 세상이 미친 줄도 모르고 그저 그 미친 세상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루나틱>을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으며 보고 난 후에는 '세상은 즐겁게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일시 11월 4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_ 3만원
예매_ 엔티켓(1588-2341)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두번째 만남 웃음과 감동 가득 <오아시스 세탁소>

때 묻은 세상 한 귀퉁이, 때 빼고 배꼽 빼는 세탁소 하나가 개업했다. 이 독특한 세탁소는 때를 빼는 세탁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빨겠다고 나선 '오아시스 세탁소'이다. 2006년 전국문화회관 지원공연 작품으로 선정된 <오아시스 세탁소>는 코믹한 에피소드와 웃음의 기예 속에 감동의 경지가 있다. "우리가 진짜 세탁해야 되는 것은 말이야... 옷이 아니야, 바로 이 옷들의 주인 마음이야". 다양한 소시민들이 오아시스 세탁소를 거쳐 가며, 그들의 일상과 삶을 세탁소에 맡겨놓는다. 소시민들이 맡긴 옷 한 벌 한 벌 마다 웃을 맡긴 그들의 삶과 찌든 때가 진하게 배어있다. 오아시스 세탁소에 걸려있는 수백 벌의 옷들 하나하나에는 소시민의 삶이 담겨있다.

일시 11월 11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_ 1만원
예매_ 엔티켓(1588-2341)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세번째 만남 자연친화적 가족연극 <하루이야기>

<하루 이야기>는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가족 연극이다. 한지와 뽕뽕, 신문지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소품과 인형들, 그리고 생수통, 페트병과 낚시그릇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통해 그동안 익숙하게 보고 들어왔던 사물들의 '다르게 보기'를 깨닫게 된다. 사물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과 능동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작품이다. 나무신령님의 도움으로 늙은 부부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 '하루'를 얻어,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핀다. 하지만 쌀밥으로 인해 하루는 무엇이란 먹어치우는 괴물로 변해 버리고 만다. 배고픔을 못 이겨 집안의 모든 것들을 먹어버린 하루는 부모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일시 11월 18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_ 1만원
예매_ 엔티켓(1588-2341)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꽃게들이 줄줄이~

이번 추석에 시골 할머니댁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주신다며 새벽시장에서 꽃게를 사오셨습니다. 한마리 들어줬는데 게가 자기네들끼리 물고 줄줄이 올라오네요.
선찬영 (부평구 삼산동)



날아가는 새들처럼

배경은 철새들이 가득한 주남저수지 바람이 뽀뽀 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 다. 설날도 아닌데 우겨서 한복을 입고 손발이 다 얼도록 새들을 쫓아 다녔죠. 지금 보니 학교 명찰을 그대로 달고 있는 제가 무척 웃깁니다.
이정우 (서구 가정동)



물위의 원두막?

테마여행을 갔다가 인제군 외강 마을에서 뗏목체험을 했습니다. 물이 맑아서 피라미 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답니다. 우리 인 천도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곳들을 오 랫동안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녀 (남구 도화2동)



사랑하는 나의 두 딸

9년전에도 늘 언니는 동생을 손 꼭잡고 예뻐하고 다독거렸는데.. 지금도 서로를 챙겨주며 변함없 는 다정한 모습 엄마는 항상 행복합니다.
박미경 (남구 주안4동)



약수터 가는 길에 예쁜 꼬마 아가씨들

아이 친구들과 같이 동네 약수터를 가는길이다.. 꼬마 아가씨들의 걸어 가는 뒷 모습이 참 이쁘 다.. 이렇게 푸른 작은산이 많은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은정 (부평구 십정2동)



보고 싶은 어머니

파란 가을하늘에는 송구름 두동실 떠있네. 30년 전 충남 태 안 학암포 굴바위 하얗게 널려있고 방개가 우르르. 그리운 어머니 굴 따는 모습 카메라 든 나를 바라보신다. 아~~ 그 리워라. 그 옛날 보고 싶은 어머니 가을은 깊어 가는데...
김하주 (연수구 선학동)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작은 아가의 발입니다. 너무 도 여러기에 조마조마하게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전현주 (남구 송의4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 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 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생선요리는 뒤집어 먹지 않는다

통째로 요리된 생선은 머리, 몸통, 꼬리를 나이프로 자른 후 지느러미 부분을 발라낸다. 그런 후 역시 나이프를 사용 해 뼈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의 살과 뼈를 발라 놓은 다음, 생선의 살만을 앞쪽에 놓고 왼쪽에서부터 먹을 만큼만 잘라가며 먹는다. 떼어진 뼈, 머리, 꼬리, 지느러미 는 접시의 위쪽에 한데 모아두도록 한다.

위쪽을 다 먹은 다음에는 뒤집지 말고 그 상태에서 다시 나이프를 뼈와 아래쪽의 살 부분 사이에 넣어 살과 뼈를 발라 놓는다. 그리고 나서 남은 생선의 살을 조금씩 잘라가며 먹는다. 그러나 대체로 생선요리는 살이 무른 편이므로 살 을 떼 낼 때 이외에는 포크만을 사용해도 괜찮다.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일단 입안에서 혀로 가시를 가려낸 뒤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오른손 엄지와 인지로 집어내거나 포크로 받아내 접시 구석에 놓는다.

새우요리는 우선 머리부분을 포크로 고정시키고 새우 살 과 껍질 사이에 나이프를 넣어 살을 벗겨내듯 하면서 꼬리 쪽 까지 옮겨간다. 이렇게 양쪽으로 반복하다 보면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그 다음 왼손의 포크로 꼬리부분을 들어 올 리고, 오른손의 나이프로 껍질 부분을 누른 후 다시 포크로 살 부분을 당기면 그 부분만 쉽게 빠져 나온다. 껍질은 한곳 에 두고 살 부분 왼쪽부터 잘라가며 마요네즈나 크림소스와 함께 먹는다.

고기요리는 한번에 썰어 놓고 먹기보다는 잘라가며 먹는 것이 예의이다. 뼈가 있는 고기인 경우 뼈에서 떼어내기 어



려운 부분은 고기가 남아 있더라도 그대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스테이크의 경우 굵는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그러 므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는 취향대로 부탁을 한다. 스테 이크의 참맛은 붉은 육즙에 있으므로 대개 적게 구울수록 고기의 참맛을 즐길 수 있다. ☀

- 레어(Rare)** 표면만 구워 중간은 붉은 날고기 상태 그대로 인 약간 구운 것.
- 미디엄 레어(Medium Rare)** 중심부가 핑크인 부분과 붉은 부분이 섞여 있는 상태로 좀 더 구운 것.
- 미디엄(Medium)** 중심부가 모두 핑크 빛을 띤 상태의 중간 정도 구운 것.
- 웰던(Welldone)** 표면이 완전히 구워지고 중심부도 충분히 구워져 갈색을 띤 상태의 완전히 구운 것.
(제공_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762-5181)

소스도 요리

요리에 나오는 소스는 무조건 뿌리지 않는다. 생선요리에 곁들여진 마요네즈, 타타르소스 같은 진한 소스는 접시 한쪽에 덜어 놓아 조금 씩 찍어 먹도록 하는데, 이는 진한 소스는 그 맛이 강해 요리 본래의 맛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기 위에 뿌려진 묽은 소스는 직접 요리에 얹어 먹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고기요리는 육류의 종류에 따라 그 맛과 향을 더해줄 수 있는 소스와 어울리는데, 오리 고기에는 오렌지소스, 돼지고기에는 파인애플소스, 양고기에는 민트소스 등이 궁합이 잘 맞는다.



괭이부리의 호랑이굴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동구 만석동에 흔히 괭이부리라고 불리는 부두가 있다. 우리 에겐 「괭이부리말아이들」란 베스트셀러 때문에 잘 알려졌다.



지금은 공장과 낚시점 등이 들어서 있지만



옛날에는 해변가에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오늘은 괭이부리에 내려오는 전설을 따라가 볼까요~?



옛날옛적 마을 아낙들이 나물캐러 괭이부리 숲으로 왔다.



그곳에서 이상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라? 이런 곳에 동굴이 있었네

한 번 들어가 보자



으... 감감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잖아~?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영? 고양이잖아?
아냐! 호랑이 새끼야



아유~ 귀여워라
호호~ 호랑이라고 새끼는 귀여운데~



어흥~



어미가 돌아 오나봐~

그러게~



아낙들은 나물 바꾸니도 내팽개치고 정신 없이 마을로 도망쳤다.

으아~ 걸음아 나 살려라!

어흥~



다음날 아침



어제 분명히 동굴에다 두고 온 나물 바꾸니가 어떻게 집마당에 있지?



오호~ 호랑이가 자기 새끼들한테 해를 입히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한 걸세~

아~



은혜를 아는 호랑이를 찾아 괭이부리의 동굴로 찾아가 볼까~

타령

콜록콜록~ 엄마, 숨이 가빠요



글·이무일 (인천시 한의사회 홍보이사, 고운몽한의원 원장 891-0288)



환절기나 겨울만 되면 발작적인 호흡곤란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다. 곤히 잠든 새벽녘에 천식발작을 일으켜 단잠이 깨며, 숨이 차서 밤을 꼬박 새우며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천식이란 기관지가 정상인보다 민감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숨 쉴 때 휘바람을 불 듯이 '휘휘' 소리가 나는 천명, 호흡 곤란, 기침이 천식의 3대 증상인데 발작이 일어나면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안색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되는 등 고통이 심하지만 발작이 끝나면 거짓말처럼 깨끗이 낫게 특징이어서 그 심각성을 간파하기 쉽지 않다. 천식은 크게 알러지성 천식과 비알러지성 천식으로 나뉜다. 알러지성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은 집먼지 진드기를 포함한 동물의 털이나 음식, 기타 알러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들이다. 사실 알러지성 천식의 경우에는 알러지원의 제거도 필요하지만 면역력을 높여주고 민감도를 낮춰주는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비알러지성 천식은 외부온도의 변화나 내부장기의 불균형 기타 비알러지성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천식에 대해 소개할까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천식의 종류를 증상과 원인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감기로 찬바람이 속에 몰려 폐가 불어나고 기가 거슬러 올라서 된 천식을 풍한천(風寒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천식은 날씨가 차면 발작하며, 폐가 차거나 허약하면 반드시 기운이 약하므로 몹시 추워하고 얼음 같은 가래가 나오는 증상이 있다.

담천(痰喘)이라는 것은 숨찬 증상이 나타나면 곧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폐가 실하거나 열이 있으면 반드시 담이 팍막해서 가슴이 그득하고 겉으로 확확 다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천식이 한창 발작할 때는 가래가 나오지 않다가 발작이 멎으려 할 때 가래를 토하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천식도 있는데 기천(氣喘)이 그러하다. 놀라거나 근심하는 것 등으로 인해 기가 몰리면 생기는데 이때에는 두려워하고 답답해 하며 숨쉴 때 코가 벌름거리면서 숨을 가쁘게 쉬는데 가래 끓는 소리는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천식은 냉한 환경이 되면 증상이 악화되는데 반대의 증상을 호소하는 화천(火喘)이 있다. 환절기보다 여름에 증상이 악화되는 화천은 화기가 폐와 위로 떠오르면 숨이 찬데 이것은 잠깐 더했다 잠깐 덜했다 한다. 대나무 수액으로 만든 죽력이라는 약이 효과적이다. 천식과 함께 물소리를 나타내는 수천(水喘)은 기침을 할 때 쫄쫄하는 물소리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찬 것인데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숨이 차게 되고 배가 불러오는 특징과 함께 대소변의 장애를 호소한다. 구천(久喘)은 말 그대로 오래된 천식인데 오랜 병으로 숨결이 거칠면서 숨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듯한 증상을 보인다. 구천의 경우에는 폐의 병만이 아닌 전신의 기력저하로 보고 인삼이 들어가 있는 한약 처방을 꾸준히 먹으면 좋아진다.

위장의 기능저하로 발생하는 위허천(胃虛喘)은 위가 몹시 허약하면 기가 치밀어 올라 어깨를 들먹거리며 숨이 찬 것이 멎지 않는데 배를 움켜잡고 기침을 하며 몸에 열이 나는 특징이 있다.

몸의 진액과 체액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음허천(陰虛喘)은 다른 천식에 비해 빈혈 증상처럼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배꼽아래에서 기도까지 강하게 치밀어 오르는 기침증상을 호소한다. 숨이 차고 가래 끓는 소리가 멎지 않는 노인성 천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천식이란 기관지가 정상인보다 민감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기관지의 문제를 치료하고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장 육부의 허실에 따라 적절히 체질을 개선시켜주고 면역기능을 조절해 줌으로써 우리 몸의 저항력을 증진시켜 한의학 치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린다.✿

직접투자를 하신다고요?

글·김전욱 차장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3)

최근 1~2년 사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하며 그 상승률 또한 전례에 보기 드물 정도로 높았다. KOSPI지수의 경우 700p대에서 시작한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1,400p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거의 배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는 등 이른바 대박을 맛보는 투자자가 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TV광고에서는 어여쁜 여자 탤런트의 '주식으로 저축하세요!' 라는 광고카피가 나오기도 했고 서점에는 주식관련 재테크 서적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기도 했다. 물론 투자시장의 활성화와 일반인들의 관심 증가가 필자에게도 싫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직접투자자와 펀드투자자의 차이

"수수료 내가며 펀드 투자하느니 내가 아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필자가 처음 만나 펀드상담을 할 때 적지 않은 고객들이 필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부자들의 투자법 중 하나는 '내가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며 철저히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일정 수익 또는 일정 손실을 보게 되면 무조건 정리한다는 투자 철학을 겸허히 실천해 가며 시장대비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투자자들도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투자자들 중 1%도 되지 않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앞에서 언급한 자기만의 철저한 기준을 정해놓고 꼭 지키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적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선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주식 직접투자자라면 내 자식은 다 예뻐 보인다는 식으로 주가가 빠져도 예뻐 보일 것이며 뭔가 돌발악재가 나올 때에는 '금방 정상화 되겠지' 하는 자기 합리화 과정을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야 땅을 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펀드는 적든 많은 내 돈을 전문가 그룹에서 관리를 해준다. 금액이 적다고 팔시하지 않으며 펀드의 수익자로서 고객 투자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나의 돈을 관리를 받는 것이다. 그것도 온갖

첨단 금융지식과 최신 데이터로 무장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이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투자에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

고 있는 투자자라고 해도 인간이라면 실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 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신 투자정보 및 각종 경제내외적인 정보와 실시간의 데이터가 승부를 좌우하는 주식투자에 있어 개인투자자(직접투자자)와 투자전문가 집단 중 누가 더 유리할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닐 수 없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재테크 방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주식, 부동산, 기타 등등... 그러나 쉽게 돈을 벌기위한 방법만을 생각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기에 임하기 마련이며, 가장 중요한 투자처인 본연의 직업에 소홀할 것임은 너무나 빠른 이치이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에 목을 메고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안타까움을 자아낼 정도이다.

펀드는 운용전문기관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라는 본질적인 개념을 떠나 나와 가족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인 것이며,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생애설계와 위험관리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본연의 삶을 충실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투자도구라고 할 수 있다.

주식으로 저축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시장에 관한, 그리고 투자 종목에 관한 철저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9



스물다섯 살짜리 처녀 소방관의 당당함 윤선숙 소방사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불 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고 해도, 이런 일을 여자들이 해 내라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요즘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해 하는 여성의 숫자가 많아 희소(稀少)에서 오는 관심조차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키야 공군사관학교 같은 데에 심심치 않게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이 여학생들이고 보면 이 일이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으랴.

그러면서도 한편, 이쪽의 웅색한 심정은 여전히 과연, 정말..., 이런 식으로 못미덥고 신빙이 가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 스물다섯 살짜리 처녀 소방관은 그런 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기만 한 것이다. 오히려 남자 소방관들보다도 먼저 저 육중한 불자동차를 몰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갈 그런 태세다.

윤선숙(尹善淑) 소방사. 가름한 얼굴에 왼쪽 쌍꺼풀이 조금 희미한 듯해서, 옛날에 읽은 어느 일본 소설 속 표현을 슬며시 인용해 던진 '절름발이' 라는 말에 배시시 이를 보이며 웃던 눈빛이 맑고 고운 처녀이면서, 말하는 것이며 앞서 걷는 모습이머가 모두 송해교 같기도 하고 이효리 같기도 한 그저 숫되고 예쁜, 어찌면 코스모스, 또 이 가을꽃의 이름으로 불러도 좋을 아직은 애잔한 모습인데 그 내면에, 남을 위해서는 생사(生死), 안위(安危)를 일순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의롭고 위대한 마음을 지닌 소방관이라니...

“사실 첫 소망은 스텐더디스였어요. 그게 꿈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아마 소방관이 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스텐더디스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녀는 이미 합격했던 서울의 모 4년제 대학교 동양어문학부를 그만두고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를 택하고 말았다. 그러나 2학년 때 치르는 대한항공 스텐더디스 특채 시험에 낙방을 한 것이다. 실망이 컸지만 씩씩하게 돌아설 줄도 알았다. 인연이 아닌 일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는 슬기가 있었다.

졸업을 하고는 스텐더디스에 대비해 쌓은 영어 실력을 밑천으로 학원 강사노릇을 했다. 하지만 이 일은 1년 만에 그만 두었다. 고3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매일 밤 자정을 넘겨 끝이 나는 데다가 아무래도 자신



의 직업으로 학원 강사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다시 공채에 응시해서 합격한 곳이 제일은행이었다. 그러나 이곳도 8개월 만에 끝이었다. 안정되고 비교적 고임(高賃)에 특히 오늘날 여성의 직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직장이었지만 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도무지 감잡혔던 것이다.

“왜 그런지 은행에 앉아 일하는 게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팔자라면 우습지만, 저에게는 운명의 길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제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소방관이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맹랑하고 신비스러운 운명 이야기는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이 있었다. 주민등록 앞 번호, 즉 821119라는 생년월일 숫자 때문이었다. 821119! 그 속에 119구급대 전화번호가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일까. 이 처녀의 운명은 그런 것이었을까. 그 무렵 우연하게도 남자 친구가 준비를 하던 것이 또 소방관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친구로부터 여자도 소방관 응시가 가능하다는, 정말 귀가 번쩍 트이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고.

“아버지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엄마한테만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은행 그만두고 두 달 동안 공부했어요. 영어는 자신 있으니까 주로 소방학 개론이나 행정학 같은 과목을 들고 봤죠. 은행 다니면서도 뭐, 다른 공부는 늘 꾸준히 해 왔기 때문

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반대가 커서 혼이 났지만요. 그렇게 소방관이 된 것이 작년 5월이었어요.”

충청남도 전체 소방관 임용 시험에서 당당 1등 합격이었다. 서산소방서에서 6개월을 근무하다가 여성이라고 구급대원 두 명 뿐인 이곳 남동구 서창소방과출소에 홍일점 소방관으로 전임해 온 것이다. 현재 사는 곳이 부평이고, 그보다 인천에서 나서 초, 중, 고, 대학을 모조리 인천에서 다닌 순 인천산(仁川産)이었지만, 아버지의 고향, 그녀의 본적지인 충청도에서 시험을 치른 것이고, 서산소방서에 임용되어 6개월이 지난 뒤 시도(市道) 간 인사 교류 때, 실제 거주지인 인천으로 오게 되었던 것.

“실제로 충남은 본적지이기도 했지만 시험 일자가 5월이었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본 것이지요. 인천 지역 시험은 그보다 훨씬 늦은 11월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전 하루가 급한데. 정말이지 그 무렵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완전한 선망이었어요. 빨간 소방차만 보아도 흥분이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대견하다. 체구도 그다지 크지 않은, 외모와는 다른 몸 어디에, 이런 진취성과 과단성과 공부에 대한 근면함과 꾸준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책임 아래 밀고 나가는 고집스러운 힘이 존재하는 것일까. 남을 위해 늘 자신을 갈고 닦아 빛을 내는 보석 같은 그녀의 마음 바탕. 진정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진 처녀 소방관.

“팔씨름 하면 웬만한 남자 대원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직업은 늘 체력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죠.”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얼굴에 무엇을 좀 발랐다는 그런 말을 하며 처녀는 푸른 상추 잎사귀 같은 싱싱하고 환한 웃음을 웃는 것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하고 비상(非常)한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이 언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

며, 무슨 헤어숍이고 무슨 손톱 화장이냐는 말을 기특하게 덧붙이면서. 그리고는 남자들 틈에 끼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자들에 동화되어 스스로 여자라는 생각을 잊게 된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한 자랑스러운 듯, 그리고 그토록 행복한 듯, 체력단련실로, 식당으로, 상시 출동 준비가 완료된 빨간 불자동차, 그리고 구급차 옆으로, 또 언제든 쭉뚝하게 차려 입어야 하는 방화복과 화이버, 장남감처럼 작은 안전화(安全靴)가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인젠가 상사 한 분이 ‘넌 머지않아 울고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전 속으로 ‘천만에요’ 했지요. 물론 그럴 뻔한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인데, 사망자를 보는 순간 좀 충격을 받았던 거죠. 끔찍하다는 생각에 밥을 먹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지난 1년여 동안 출동 횟수를 따져 보면 아마 수백 번은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 이상 지독하고 끔찍한 현장을 당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그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고, 또 두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면... 인간으로서 안타깝고 슬프기는 할지라도 절대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말대로 이 처녀는 누구보다도 완전한 등황색 제복의 소방대원이니까.

말수가 적고 순한 남자 소방관들 틈에서, 그녀는 출동할 때의 운전자들의 교통질서라든가 고속도로 갓길 확보, 주택가 골목 주정차 같은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민의식을 강조한다. 당차고 기특하다. 이제 아버지도 늘 몸조심을 당부하는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일 아무나 못하는 고귀한 일이에요. 진짜 인간의 정, 인간의 멋을 느낄 줄 아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힘이 자라는 한은 이 일을 계속할 테니까요.”

헤어져 오면서 입속으로 조그맣게 뇌어 본다. 네가 참 당당하고 미덥고,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구나. 항상 몸조심하렴.



차 사고내고 감사하다



차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다. 처음 춘천에서 1층 면허를 따고 교회 차를 운전하기 위해 남편에게 연수를 받았다. 교회 차를 운전할 때도 한동안 남편이 보조석에 앉아 함께 다녔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합격도장이라도 찍듯이 나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한 구역 한 구역을 무사히 돌고 교회에 도착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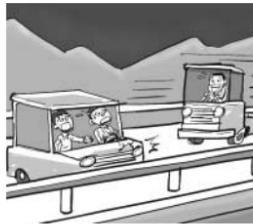
하루 하루 운전을 하면서 재미있고 신기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조카가 친구와 함께 놀러온다고 해서 춘천역으로 마중을 나가게 되었다. 마침 남편은 상담 중이어서 내가 차로 마중을 나갔다. 역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조카와 친구를 만나서 집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성공을 하였다. 조카를 내려주고 후진을 하려는데 저녁때라 차들도 많고 어두워서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 남편이 후진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후진 기어를 넣었다. 얼마동안 뒤로 잘 나가더니 갑자기 뺨뺨하고 한 승용차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잠시 앉아있는데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이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조심조심 후진을 하고 가까스로 탈출한 후 메모지에 동, 호수와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올라왔다.

며칠후 수리비 청구서가 날아 왔다. 비록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삼십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한가? 그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 안 다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난 감사하고 또 감동했다. 그렇지! 바꿔 생각하면 정말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다.

문우진 (서구 가좌2동)

아찔한 초보운전

제가 초보운전 당시, 차악산 여행 때의 일입니다. 친구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했지만 난 위험을 무릅쓰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운전을 하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차들은 일제히 비상등을 켜었습니다. 난 모든 정신을 손과 발에 집중시켜 운전했습니다. 정적과 침묵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길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대로 운전을 계속 하면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휴게소 5Km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환호성을 질렀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난 우측 방향등을 켜고 오른쪽 노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나치게 안도한 탓일까.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는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말았습니다. 난 황급



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들었습니다. 10톤에 육박하는 트럭은 내 뒤에서 강렬한 경적소리를 뿜어댔습니다. 친구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휴게소로 들어섰고 트럭도 내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온 트럭 기사는 내 차 곁으로 오더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양반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일대의 욕설이 교차하면서 급박한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강정규 (부평구 청천2동)

"그래도 꿈 발바닥은 아니네!"

지난 달 운전면허 갱신을 했다. 내가 운전면허를 따지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싶었는데 운전 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한 것 같아 설핏 웃음이 나온다. 운전면허를 갖기 위해 고생했던 10여년 전이 떠오른다. 그 때는 지방에서 살 때고 지금처럼 운전면허 학원이 그리 흔하지도 않았다. 필기시험을 보고 1년 안에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 당시 바로 접수를 해도 시험장의 수용 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3,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 학교에 근무했던 나는 직업의 특성상 평일에 휴가를 내는 게 쉽지 않아 접수를 하고도 시험 볼 기회를 놓쳐 버리고 1년이 지나버렸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필기시험을 치르고 이번에 실기시험이 통과하지 못하면 또 필기시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실기시험 날 아침 남편이 출근길에 시험장까지 바래다주며 "혹시 떨어지더라도 집에는 들어와." 하는 것이다.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합격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남편은 "그래도 꿈 발바닥은 아니네!" 한다. 운전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로가 무섭고 차가 무섭다.

조예은 (부평구 삼산동)

"저기 사람들이 또 쳐다본다"

8형제 중 5형제가 인천에 살고 아이 키울 때 작은 차 하나로 나들이 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엄두도 못내게 아이들의 덩치가 커졌지만 오물조물 월미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어대며 손짓을 하던 이웃 차들을 의식하며 다닌 때가 생각난다.

아이가 둘이 되도록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닌 시절. 그때 동서네가 구입한 작은 소형차는 인천에 사는 형제들의 훌륭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날씨도 화창했던 어느 봄날 월미도를 가지고 의견을 모



오고 두 아이 준비물도 챙기기 바쁜 시간인데 동서네가 벌써 아파트 앞에 왔다고 전화를 했다. 서둘러 내려가니 시누네 가족, 동서네 가족 모두 타고 있지 않은가! 아무래도 비좁은 것 같아 택시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또래 사촌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 차를 타지 못해 서로 아우성을 해댔다. 동서가 함께 가자고 재촉해 택시비도 아낄겸 '에이, 모르겠다, 우선 타자' 했다. 그렇게 탄 식구가 동서네 넷, 시누네 셋, 우리 넷. 비록 갓난쟁이 우리 작은아이도 있었지만 내리며 세어 보니 열 한명. 월미도 가는 도로 곳곳에 우리 차안을 들여다보며 웃어대는 이웃 차들에게 너도 나도 인사를 해대며 도착하니 땀이 뒹뒹이 된 채 우습기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렇게 비좁게 다닌 것도 아이들 어릴 적 한때였다.

글쎄! 지금은 엉덩이가 나보다 큰 녀석들이 그렇게 비좁게 다니자면 먼저 달아나 버리겠지만 월미도를 갈 때나 작은 차를 보며 아이들 어릴 적 기억을 즐겁게 추억하곤 한다.

김정례 (남구 주안7동)

남매는 용감했다~~!

작년 이맘때쯤의 일이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면서 한편으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신의 차를 마련해서 운전하고 싶은 맘이 굴뚝갈을 것이다. 나도 그중의 한 명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차에 직장동료에게서 차를 얻게 되었다. 곁으로 보기에 무척 낡았고 찌그러지고 굵히고 성한 곳이 없는 형편없는 차였다. 하지만 난 미숙한 운전자로서 어차피 연습이나 하고 나중에 좋은 차를 사야겠다 다짐하고 운전연습에 몰입했다. 어느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청천벽력같은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정해진 날짜 안에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고민 끝에 가장 가까운 곳을 가기로 했다. 떨리는 맘을 추스리고 남동생과 함께 첫 외출을 하게 되었다. 물론 초행길이 아니라서 가는 데는 15분 남짓 걸렸다. 하지만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서 제물포에서 주안을 거쳐 동암을 거쳐 부평까지 가게 되었다. 이것이 꿈이기를 바랬다. 비가 와서 앞은 안보이지, 차



에선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지, 길은 모르지... 중간에 내려서 차를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동생의 맘은 오죽했으랴. 안전벨트를 부여잡고 나에게 운전연습 안하고 뒤편은 등 오늘 내에 집에 갈 수 있겠냐는 등 썩씩대며 잔소리를 해댔다. 동생의 길안내와 함께 뺑뺑 여러 길을 돌고 돌아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간신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히 오게 되었다. 동생은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렸다. 집 앞에 서계신 부모님을 발견하더니 내동생이 하는말 "다신 누나가 운전하는 차 안탈래요. 오늘 2대독자 완전 잃을뻔 했거든요."

동생아~~~그땐 미안했어, 내가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부산까지 안간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렴, 그일로 운전연습 아주 혹독하게 해서 지금은 오너드라이버 됐잖니.

정혜림 (남구 송의2동)

차의 놀라움

우리 가족은 여름휴가에 노래를 부르며 아빠 차에 몸을 실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신 과자 때문인지 나는 입도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데 두 손이 끈적거리며 찜찜했다. 가다가 슈퍼에 들려 생수 한 병을 사서 마시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했다. 개운한 맛은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가던 자동차가 과열때문인지 심상치 않았다. 아빠께서는 물을 부어야겠다고 하시며 "혹시 아까 남은 생수 있니?"하셨다. 난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손을 씻느라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아빠께서는 슈퍼를 찾아와야겠다고 하시며 어디론가 가셨다. 40분정도 지나 서야 황급히 돌아오셔서 작은 물 한 병을 차 맨 앞부분에 쪽 부으셨다. 비록 작은 양이지만 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에 우리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차도 물을 마시고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나요?

박정아 (연수구 연수1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봉사'

다음달 테마는 '봉사'입니다. 추운 계절,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과 봉사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http://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시 의료원 11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 11월 6일(월)~11월 10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 내과 1
 - 11월 13일(월)~11월 17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 비뇨기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30분~오후 4시
- 검진명 및 인원 : 당뇨검사 50명, 전립선비대증검사 50명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651~5, 580~6478)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가산기준 변경안내

- 주요내용
 - 연체금부과 상한선을 낮춤 : 15%에서 9%로 하향
 - 연체금 가산단위를 3개월단위 5%에서 매월단위 1%로 변경

채납기간		납기후	1개월 경과	2개월 경과	3개월 경과	4개월 경과	5개월 경과	6개월 경과
연체금	개정전	5%	5%	5%	10%	10%	10%	15%
	개정후	3%	4%	5%	6%	7%	8%	9%

- 변경시기 : 9월분 보험료부터(납부기한 : '06년 10월 10일)
- ※ 보험료 납기후에 종전과 달리 월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 _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인천지사 (국번없이 1355)

진로선택 도움 받으세요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무료 상담 심리와 청소년성격유형검사(MMTC)를 실시합니다.

- 일시 : 2006년 연중 실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및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
- 내용
 - 청소년성격유형검사(MMTC), 중·고등학생 진로탐색검사(Strong) 실시
 - 가족단위 성격유형검사 실시 및 관계개선 상담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아울러 파티기획단을 모집합니다.

- 내용 : 청소년파티를 기획·진행할 파티기획단
- 언제 : 11월 25일(토) 오후6시까지
- 혜택 : 파티플래너 교육, 도래와의 우정, 기획력·리더십 향상
- 하는 일 : 연2회~4회 청소년파티를 직접 기획 및 진행
- 참가자격 : 파티플래너가 꿈이거나 새로운 경험에 관심있는 청소년
- 신청방법 : 동구청소년수련관에 전화로 신청 (15명 선착순 마감)

문의 _ 동구청소년수련관 (761-1318)

하이패스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한 고속도로 하이패스란 요금소에서 정차할 필요 없이 달리는 차 안에서 무선 또는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 통행료 징수시스템입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전용 차로를 이용한 무정차 주행으로 시간 및 기름값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3% 추가 충전금액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20%, 그 외 시간대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hipassplus.co.kr)나 수도권 고속도로 요금소 옆에 있는 영업소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_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545-0127~9)

미추홀문화센터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센터에서는 실용강좌 위주의 다양한 강좌와 무료 강좌 개설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접수기간 : 11월 13일(월)~12월 9일(토)
- 강좌기간 : 12월 4일(월)~2007년 2월 24일 (3개월)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인천여고)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
 - 어린이 : 어린이 서예교실 - 한문·한글, 어린이 수학 / 어린이 한자 / 어린이 중국어
 - 성인 : 서예 교실 / 서양화 / 성악 /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 우리나라 문화유산 탐방 / 디캐 필캐 사진 촬영 / 일어 회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 / 중국어 회화 / 실버한국무용 / 생활원예 / 대생 & 수채화 / 요들교실
- 특강 : 인천 바로알기 '인천 개항의 역사특강' (인천시의회의원 이병화)
- 어린이 경제 교실 (한국은행 인천본부)
- 원어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잉글리쉬 무료 체험
- 무료 강좌 설명회 : 정시 논술·고술 대비 학부모 설명회 / 필라테스 & 스트레칭 배우기 / 걸스 힙합 배우기 / 방송댄스 배우기
- 체험 기행 : 나비 박물관 관람 / 곤충의 유충 키우기 /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 / 강화 유적지 체험 / 어린이 뮤지컬 '토토의 화성 이야기' 관람 및 감상문 쓰기 / 신나는 스키 캠프
- 겨울 방학 특강 : 나만의 책 만들기 / 모래로 만나는 신나는 겨울 이야기-델타가베 모래놀이 / 신비한 과학의 세계-키즈 사이언스 / 철제 크레인 만들기-매드 사이언스 / 내가 짱! 스피치 리더십 교실 / 멘사가 추천하는 사고력 보드게임 / 예쁜 그림, 아이들의 세계-생각하는 표현미술 / 날마다 스타 되는 어린이 페이스 페인팅 / 애들아~ 흥놀이 가져!!!-도우 & 옛날 집 & 솟대장식 & 목걸이 만들기 / 이 세상에 하나뿐인 크리스마스 케익&쿠키 만들기 /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요술 풍선 / 소꿉놀이 방안 꾸미기-창작 디자인 교실 / 천연 아토피 보습 로션&입술 보호 천연 립밤 만들기-어린이 천연비누 & 화장품 / 신나는 방송 댄스
- 정규강좌 : 공예, 창업반, 자격증반, 미술, 무용, 음악, 국악, 어학, 교양, 건강, 스포츠, 미용, 창의력 계발, 학습 계발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765-0220, 0250 www.mchart.co.kr)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실시합니다

가구통행실태조사란 지하철 건설, 도로 신설·확장, 버스노선체계 개편, 주차장 건설 등 각종 교통정책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거주민들의 통행의 기점과 종점, 통행목적,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수도권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설립된 특별행정기구인 수도권조합의 주관으로 서울·인천·경기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천시 관내 조사는 인천발전연구원 감독하에 조사 전문 업체에서 수행합니다.

조사기간 및 방법

- 10월 28일(토)~11월 2일(목) : 가구방문 설문조사
- 10월 16일(월)~11월 10일(금) : 버스 승·하차 인원조사, 터미널 이용객 설문조사, 택시 이용현황 조사, 주요도로 교통량 조사 등
- 조사 참여주민, 조사원 혜택
 - 조사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승용차 등 경품 제공 (가구방문조사 협조 가구에 한함)
 - 조사원으로 수고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문의 _ 2006년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도우미 전화 (080-052-1212)

제4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우리시 청소년회관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 및 보급을 위해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11월 25일(토) 오후 3시~오후 6시
- 장소 :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인천 남동구 장수동)
- 내용 : 본선진출 14팀의 댄스경연, 축하공연
- 시상내역

상 명	팀수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1	상 장패	
금 상	3	상 장패	분야별1팀
은 상	3	상 장패	분야별1팀
동 상	3	상 장패	분야별1팀
장려상	4	상 장패	

※ 참가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자 신청접수
 - 접수분야 : 힙합, 댄스스포츠, 치어댄스 등
 - 신청접수기간 : 10월 9일(화)~11월 8일(수)
 -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 fax(884-2024), 우편(402-010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31-6), e-mail(youth@incheon.go.kr)중 선택
 - 참가자격 : 인천시 관내 학교 재학 또는 거주하는 중학생이상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팀별 5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된 댄스팀 (전년 우승팀(대상)은 제외)
- 접수시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청소년회관 비치, 홈페이지 게재)
 - 참가곡 CD : 노래전곡 또는 리믹스 5분이내 구성
 -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중)

참가곡CD 및 신분증 사본은 예선전까지 제출 가능
학교장 추천시 예선에 한해 2점 가점부여

접수 및 문의 _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지도팀 (887-5270~1)

2006 진로탐색엑스포 개최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진로탐색엑스포를 엽니다. 진로탐색 엑스포란 미래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 정보와 자료를 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접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 일시 : 11월 30일(목)~12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시립도원체육관 (도원역)
- 대상 : 중3~고3, 학부모, 일반인 등
- 내용 : 진로탐색관, 진로정보관, 직업체험관, 전문인과의 만남, 부대 행사 등

문의 _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김수진 팀장 (432-0717~20)

I Love MOO~

우리시 청소년 웹진 MOO가 제7기 학생 기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방법 및 일정

- 인터넷 접수
 - 접수기간 : 10월 25일(수)~11월 20일(토)
 - 접수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청소년웹진 MOO(moo.incheon.go.kr)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신청 자격
 - 인천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 온라인상에서 카페 운영자 및 개인 사이트 운영 청소년
 - MOO 사이트 각종 이벤트 및 게시판 참여도가 높은 청소년
 - 글짓기, 컴퓨터, 요리, 영화, 게임, 미술 등 특기 청소년
- 청소년 기자 활동시 특전
 - 시 주최 행사,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단체 행사 개최시 우선 참여 기회 부여
 - 활동정도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
 - 청소년 기자 : 기자활동에 소요되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월 50,000원), 임기 종료시 시장 표창 수여
 - 청소년 명예기자 :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 문화상품권 지급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6)



강화 교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오세요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529번지에 위치한 교동초등학교(교장 정안식)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교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인규)에서는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및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 개교 100주년 기념식
- 일시 : 11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교동초등학교 교정
- 행사 : - 기념식
 - 유공동문 감사패 전달, 기념문집 배부
 - 식전행사
 - 식후행사
- 동문체육대회 • 동문인의 밤 행사

문의 _ 교동초등학교 교무실 (932-4021)

여행수기 공모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향'을 주제로 고객여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체험을 통한 여행정보를 발굴하여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 응모분야 : 고향에 대한 추억, 달라진 고향의 모습, 고향 방문기, 고향의 미담, 부모님전상서 등
- 접수기간 : 10월 23일(월)~11월 20일(월)
- 응모방법 : 교통편, 볼거리, 먹거리 등 여행정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freeway.co.kr)에 응모
- 심사결과 발표 : 11월 30일(목)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상금 3백만원, 우수상 2명 상금 1백만원, 장려상 10명 상금 30만원

문의 _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2-2230-4214)

2006 인천조경상 공모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한 각종 조경사업 중 우수한 조경현장을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6 인천조경상을 공모하고 시상할 계획이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대상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 기간 중 우리시 관내에서 시공완료된 옥외 건축물 조경, 공원·녹지 및 가로조경 등으로 작품 규모 및 용도 제한 없음(단, 제 1, 2회 조경상 공모에 참여

한 대상지는 제외)

※ 조경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되 설계자도 응모 신청 가능

- 구분
 - 공공부분 : 일반건축물, 옥외공원, 공원·녹지, 가로조경 등
 - 민간부분 : 일반건축물, 옥외공원, 공원·녹지, 가로조경 등
- 작품공모 및 접수
 - 공모방법 : 시 및 구·군 홈페이지 게시, 신문 등 언론홍보
 - 작품접수 : 10월 23일(월)~11월 21일(화) (30일간)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62, FAX 440-3669)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작품 심사
 - 심사일시 : 2006년 12월 중
 - 심사위원 : 도시녹화자문위원 (11명)
 - 심사발표 : 작품심사 익일 우리 시 홈페이지 (수상작 개별 통보)
 - 제출요령
 - 소정 양식의 응모신청서 (별첨서식)
 - 판넬 2개 (A0 용지에 가로 작성)
 - 작품 설명자료 제출 : 작품 제출자가 심사위원에게 설명(5분 이내) 할 수 있는 CD제출 (파워포인트 작성)
 - 기타 :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사본 1부 제출
- ※ 자세한 제출요령은 인천시홈페이지 → 살기좋은인천 → 인천소식 → 새소식 → 공지번호 4671 참조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662)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무료진료사업안내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하여 복권기금으로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및 그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자녀, 노숙자 등
 - 무료진료사업시행의료기관 :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 의료비 지원
 - 횟수 : 연간 제한 없음
 - 비용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서비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당일 외래는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래 진료 인정
- 문의 _ 시 보건정책과(440-2756),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580-6441), 인천적십자병원 (280-2114)

인천의 노래 제작자 공모합니다

우리는 인천의 발전사와 미래를 표현하여 인천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의 화합과 애郷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을 수 있는 인천의 노래를 제작할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합니다.

- 대상 : 인천을 대표할 노래 제작에 관심과 의욕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방문접수)

- 접수기간 : 10월 30일(월)~11월 6일(월) (공휴일 제외)
 - 대상자 심사 : 11월 8일(수)~11월 10일(금)
 - 발표 : 11월 13일(월)
 - 인천의 노래 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모자격 : 인천지역을 주 대상으로 창작 및 연주활동, 음악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우리시 소정 양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인천의 노래 제작 계획서
 -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기타 신청자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 제작 음악물 등) 1부
-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3)

제17회 시민문에 공모합니다

인천문인협회(회장 김윤식)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생활 속의 문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금년에도 시민 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금년으로 제17회를 맞는 본 문예대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편접수(마감당일 우편 소인 유효)
 - 응모자격 : 대학생 이상 일반인으로 등단하지 않은 인천 및 인천 인근 지역 거주자
 - 접수장소 : 인천문협(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7-4, 문화회관 4층)
 - 접수부문 및 분량 : 시(5편 이상), 수필(2편 이상), 아동문학(동시 : 5편 이상, 동화 : 2편 이상), 소설(200자 원고지 70매, 1편)
 - 당선작 발표 : 11월 27일 예정(개별통보 및 문협 홈페이지, 일간지상)
 - 시상내역 : 시, 수필, 아동문학 부문은 최우수상 각 80만 원, 소설 부문은 100만 원(그 외 각 부문 금·은·동상 상금 수여)
- 문의 _ 인천문협 사무국(863-1797)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전공 및 인원 : 경영·무역, 부동산관리 00명
 - 수업연한 : 2년(4학기)
 - 수업시간 : 화·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45분
 -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27일(월)~12월 1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교부 및 접수처 : 경영대학원 교학부(본관 519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http://www.incheon.ac.kr/)

기탁금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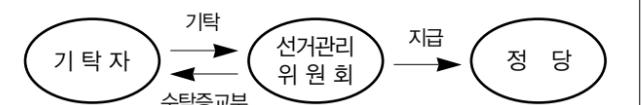
• 취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0원을 기탁하면 실질적으로 110,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00,000원 + 주민세 10,000원 = 110,000원)

●입금계좌번호 : 566-01-047331(은행 : 농협, 예금주 : 인천시 선관위)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고철덩어리? 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고물로 나온 쇧덩어리 앞을 지나치며 몸이 잔뜩 움츠러든다.

세상 모든 총칼이 쟁기로 만들어지고
이땅의 대량살상 무기들이 모두
옛장수 리어카에 실려 나오는 그날을 꿈꿔본다.

(남구 도화동에서)

글·사진 유통현 (본지 편집장)



첨단기술 보호, 국가정보원이 함께 합니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우리의 첨단산업 기술이
한순간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는
첨단기술 유출 관련 신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32-437-1600** (www.nis.co.kr)

nis 국가정보원